서울大學校 同窓會報

동창회 지표 •참 여 •협 력 •영 광

發 行 人 金 在 淳
編 輯 人 鄭 宗 澤
印 刷 人 金 暎 宰

發 行 所
서울大學校總同窓會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區 桃花洞18-2
☎ 702-2233~5 · FAX : 703-0755

銀行지로番號 7500875
對替口座 010017-31-0621565

제216호 1976. 4. 13 등록번호(서)라-137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6년 3월 1일

커버스토리 12면

제21대 총장

鮮于仲皓박사

관악춘추

鮮于仲皓 신임총장의 취임을 서울대 동창들은 진심으로 축하한다. 鮮于총장에게 부탁할 것은 우선 「經營마인드」를 가져 서울대를 알차게 운영해 달라는 것이다. 바야흐로 세계의 대학은 경영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미국같은 나라에서는 저명한 학자보다는 오히려 경영능력을 갖춘 사람을 총장으로 발탁하는 추세이다. 그만큼 대학의 「효율적인 경영」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이다. 그동안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었던 우리나라 대학도 경영측면을 중시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鮮于총장은 부총장을 지낸 경험이 있는 만큼 대학운영에도 그 나름의 솜씨를 발휘할 것으로 믿는다.

신임 총장에게 바란다

특히 서울대는 앞으로 경쟁풍토를 더욱 조성시켜 세계 일류대학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 우리나라의 일등대학인 서울대학이 세계의 상위권대학에 못끼고 있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다. 앞으로 서울대학을 일류화, 特化시켜 세계의 대학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바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수를 비롯한 대학종사자 각자가 더욱 뚜렷한 사명의식과 국제감각을 가지고 세계의 대학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대학의 의식수준과 관행도 세계화의 추세에 맞춰 크게 개선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특히 총장은 총장대로 「명예로운 자리」라는 사실을 자부하면서 정부의 주요 직책에 팔려가는 사태가 없어야 서울대의 자긍심과 명예가 지켜질 것이다. 〈林〉

만든사람 논설위원 : 金榮國, 金哲洙, 孫一根, 崔青林, 朴應七, 金昌悅, 朴世熙, 林炯斗, 李東和, 李炯均, 宋鎭琳, 李年憲, 丘月煥, 洪性萬, 朴紀正, 李成俊, 安炳璨, 李元馥 편집주간 : 李世震 기자 : 安輿燮, 金志妍

졸업축사

희망을 찾아갑시다

존경하는 鮮于仲皓 총장! 교수 및 교직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 하신 학부모와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 정들어 온 학창을 떠나는 사랑하는 동문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복되고 영광된 오늘이 있음을 충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미래에 행운과 큰 보람이 충만하기를 제가 믿는 하나님에게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서울대학교를 가리켜 「학문의 대학」「겨레의 대학」「세계의 대학」을 지향하는 대학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대학에서 학창생활을 마치고 정든 캠퍼스를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졸업이라 하지 않고 Commencement라 하지요. 일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말하지요. 바로 Beginning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무엇을 시작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앞에는 21세기가 눈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0년 동안 자나깨나 소망하고 기다려온 조국통일에의 길이 현실적으로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1세기! 오늘날 전세계의 지성들은 한결같이 해도없는 항해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불투명한 세기라는 뜻이겠지요.

누가 해도없는 세기에 조국의 미래를 안전하게 이끌어 갈 것입니까? 동족상잔의 아픔을 넘어서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누가 이룩해 나갈 것입니까?

지나간 1백년 동안 우리 민족은 나라를 잃고 망국의 서러움 속에서 죽지 못해 살아오는 수모를 당한 바 있고, 해방을 맞이하고서도 민족의 분열, 동족상잔의 아픔을 체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생각하면 이러한 체험은 비록 우리만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 전쟁이외의 정치적 이유로 무려 1억 7천만의 인명이 상실되었습니다. 그 대부분이 소련과 중국, 나치 지배하의 독일, 일제 지배하의 아시아, 이 모두가 전체주의 독재권력하에서 생겼던 일들이었습니다.

냉전이 끝나면서 성급한 사람들은 「역사의 종언」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북아시아, 특히 우리 한반도의 비극의 역사는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교훈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희망의 상징입니다. 역사적으로 희망은 반드시 존재하며 다시 살아나곤 했습니다. 희망과 공포 사이의 오랜 대립 속에서 희망은 부활하여 왔습니다.

명예로운 서울대인 여러분!

희망을 향하여 첫발을 내디딥시다. 희망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지난날의 역사적 경험을 살린다면 희망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통일에의 희망은 여러분의 어깨에 매어져 있습니다.

금년은 모교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모교의 창학정신을 상기합시다. 진리는 나의 빛, 「VERITAS LUX MEA」

사랑하는 여러분! 변하는 세계의 물결에 뛰어듭시다. 통일에의 길을 찾아갑시다.

20만 동문이 굳게 뭉쳐 자유가 박탈되고 민주주의가 억압된 조국의 북녘땅에 기본적 인권과 시민적 권리가 살아날 수 있게 합시다. 희망은 증오에 대항하는 힘입니다. 분단으로 인한 깊은 상처의 기억을 증오가 아니라 희망으로 통일합시다. 통일된 조국! 떳떳하고 힘있는 나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우리들의 조국을 찾기 위하여 희망의 발걸음을 내디딥시다. 그리하여 「민족의 대학」답게 「세계의 대학」으로 도약합시다.

오늘의 이 식전은 졸업식전이 아니라 개시의 식전이 되게 합시다.

1996年 2月 26日
서울대학교총동창회장 金 在 淳

졸업식사

사랑의 정신을 갖자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열정과 의지가 진정한 자신감과 불굴의 의지로 삶의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두 가지 점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은 지금까지 가꾸어 온 이성적 능력과 학문적 탐구의 바탕 위에서 아무리 현실이 혼란스럽더라도 이성적 가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오늘날 우리 주변의 사회는 생태계의 위기가 심각하게 논의될 정도로 물질문명의 반생명적 현상과 비인간적 가치관이 팽배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위기의 세계를 극복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모든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사랑의 정신을 갖도록 당부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생명의 가치가 훼손되고, 비인간적이고 비이성적 현상이 우리의 삶과 현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때로는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진리와 생명에 대한 사랑의 가치는 언제나 살아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우리의 사회 어느 곳에서나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우리의 삶과 역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숙한 이성의 눈으로 현재의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고, 이 현실에서 희망의 가능성을 찾는 일은 우리 서울대인 모두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의무일 것입니다.

1996년 2월 26일
서울대학교 총장 鮮于 仲 皓

졸업치사

된 가치를 추구하자

오늘 제50회 서울대학교 학위수여식에 참석하여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문을 토론하며 대학생활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했던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졸업을 축하하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우리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새시대는 정보화사회·지식사회로 일컬어지는 새로운 문명의 시대입니다.

정보화사회·지식사회는 새로운 과학기술과 새로운 지식, 그리고 새로운 문화의 창조력이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사회입니다.

외면적으로는 평화롭지만 내면적으로는 냉철하고 무서운 세계경쟁의 한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탁월한 지적능력을 개발·발전시키는 것은 미래사회에서 한없이 중시되는 힘의 원천입니다.

여러분은 이 어려운 시기에 한국을 이끌어 가는 견인차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심의 각축, 위장된 탐욕을 초극하여 성급한 주장보다는 타인을 이해하며,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며, 진지한 고뇌로 겨레를 생각하는 참된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복지적 문화국가의 새로운 청사진을 실현하여 세계앞에 그 수범을 제시하여 가장 의연하고 가장 도덕적인, 그리고 자긍심에 찬 민족국가의 모습을 창출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수준에서 사고하고, 한국적인 토양위에서 행동하는 지식인이 되어 주기를 우리 모두가 여러분에게 열망하고 있습니다.

1996년 2월 26일
국무총리 李 壽 成

미술작품

姜 雄 植 作

「소래」 캔버스에 오일, 53×41㎝, 1991

〈작가 약력〉

△1964년 서울대 상대졸
△한국미술동호인회 회원전
△서통 레이오백(주)대표이사
동아생명보험(주)상무이사
△현 아메리칸스탠더드
코리아(주)부사장
△1995년 서울경제신문사 초대
제1회 「名士미술전」

〈작품평〉

姜동문의 작품은 具象畵쪽이라고 볼 수 있겠다.

미술대학을 나오지 않고 모교 상대 경제과를 나온 아마추어로서 바쁜 일상 생활속에서도 틈틈이 작품활동을 해온 姜동문의 열의와 부지런함에 미술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으로서 먼저 찬사를 보낸다.

姜동문의 작품은 아마추어의 작품이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아깝다. 작품수준이 높고 내용도 상당히 건실한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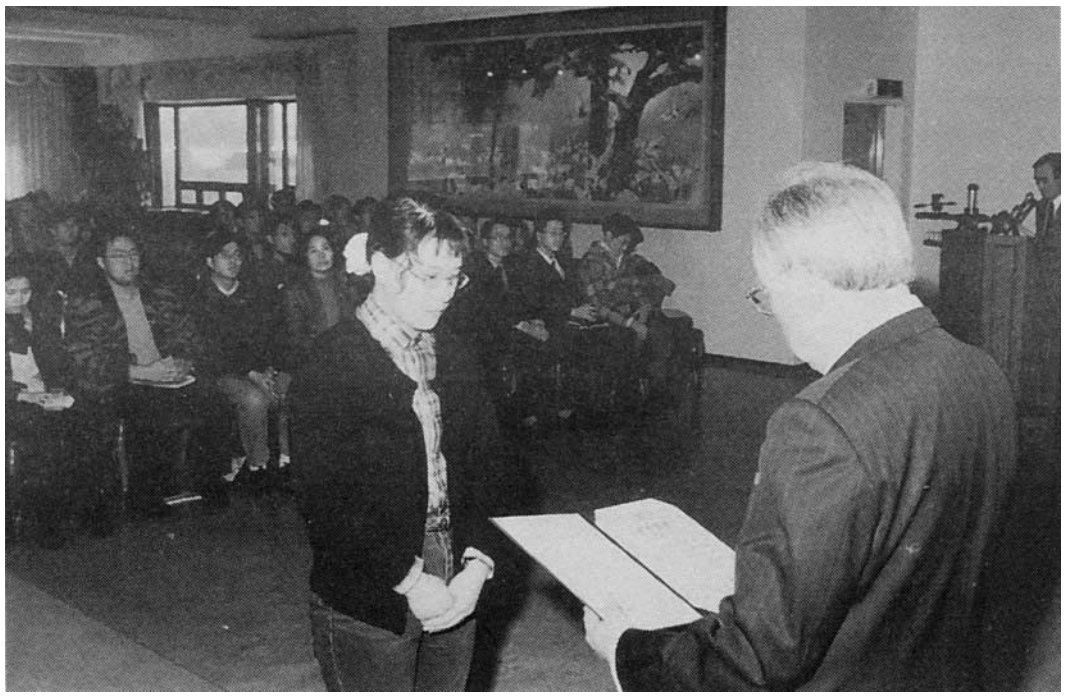
작품구도도 짜임새가 있고 색감도 건실하며 대담하다. 작품의 분위기 묘사에도 뛰어나서 姜동문의 뛰어난 미적감각을 엿볼 수 있다.

〈白文基(50년 美大卒)예술원 미술분과위원회 회장〉

서울대총동창회(전화 702—2233)

재학생 1백89명에 장학금 총1억7천여만원 지급

金회장 "조국의 운명을 짊어졌다는 책임감 갖기를"



본회는 지난16일 96년도 1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본회를 비롯한 각 단과대학(원)동창회는 최근 96년도 1학기 장학금을 지급하고 후배들의 학구열을 독려했다.

이번 장학금은 본회(재단법인 관악회)가 82명에게 9천51만9천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 각 단과대학(원)동창회에서 총1백89명에게 1억7천1백50만원을 지급했으며 前年同期對比 인원수는 34명이 줄었고 금액은 2백67만3천5백원이 줄었다. 그 원인은 각 단과대학(원)동창회가 장학금 수혜인원을 동결하고 모교지원 비율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등 개교50주년기념 행사 준비에 들어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회(재단법인 관악회·이사장 金在淳)는 지난 16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李世震사무처장의 사회로 96년도 1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金善娥(人文大 3년)양을 비롯한 82명에게 9천51만9천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金회장은 축사를 통해 『선배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것인 만큼 후배를 사랑하는 정과 마음이 담겨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조국의 운명을 걸머졌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李正彬학생처장의 격려사에 이은 답사에서 辛永稷(人文大 4년)군은 『열심히 재능을 갈고 닦아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어 관악을 빛내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관악회 金道昶·白文基·尹美子이사, 朴英俊·朴柱鐸감사, 동창회 方孝宣감사가 참석했으며 張原碩(音大 4년)군이 吳受眞(音大 2년)양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그대 있음에」「사랑」등 축가를 선사했다. 행사를 마친 참석자들은 4층 부페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오찬을 함께 하며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한편 각 단과대학(원)동창회에서 지급한 장학금과 인원수는 다음과 같다.

▲가정대동창회(회장 李仁子)=목련회장학생 1명:82만2천원 ▲간호대동창회(회장 楊銀淑)=5명:5백74만4천원 ▲법대동창회(회장 琴震鎬)=낙산장학회 42명:3천5백28만원 ▲상대동창회(회장 張禮準)=향상장학회 34명:1천7백만원 ▲수의대동창회(회장 金範來)=1명:70만원 ▲약대동창회(회장 李禮植)=5명:2백50만원 ▲음대동창회(회장 李誠載)=1명:1백28만1천원 ▲치대동창회(회장 金讚淑)=4명:6백만4천원 ▲대학원동창회(회장 李光魯)=4명:4백69만6천원 ▲경영대학원동창회(회장 李燦河)=2명:2백10만2천원 ▲행정대학원동창회(회장 姜敏求)=3명:3백15만3천원 ▲환경대학원동창회(회장 朴亨錫)=5명:1백70만원

특지장학금·연구저술비
洪性大·李吉女동문 출연

본회 金在淳회장은 洪性大상산학원이사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상산학원 이사장 洪性大(63년 文理大卒·재단법인 관악회 이사)동문이 지난 27일 샘터사에서 특지 장학금과 특지 연구저술비로 2억원을 본회 金在淳회장에게 전달했다.

재단법인 관악회의 관리하에 개별 장학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본회는 이번 출연금을 원금으로 하여 洪동문이 특별히 지정하는 모교 재학생과 교수에게 洪동문의 명의로 매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94년에 약 35억원이 소요되는 모교 자연대 수리과학연구동 건립을 지원한 바 있는 洪동문은 현재 모교 기성회 부회장, 남성중·고교동창회 회장, 사단법인 한국사립중·고교 법인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한편 지난 23일 동인천 뉴코아타운 양자강에서 열린 인천지부 임시총회에서 인천중앙길병원 이사장인 李吉女(52년 醫大卒·본회 상임이사)동문이 특지 장학금으로 1억원을 출연키로 약정했다.

(志)

96년도 「정기총회」 개최 안내

서울대학교총동창회 1996년도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자 하오니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아 래—

■일 시:1996년 3월 23일(土) 오후 2시
■장 소:신라호텔(2층)다이너스티홀
■안 건:① 95년도 결산
② 임원개선
③ 기타
■회 비:2만원
■기 타:① 폐회후 부페
② 기념품 추첨 행사

서 울 대 학 교 총 동 창 회 회 장 金 在 淳

약대동창회

李海政동문등 동창회장상 받아

李禮植회장이 동창회장상을 수여하고 있다.

藥學大學同窓會(회장 李禮植)는 지난 23일 동창회관 관악홀에서 신입회원환영회를 겸한 9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同會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해온 李海政안양지부회장을 포함한 5명의 동문이 총동창회장 표창을 받았으며 魏善煥, 黃永植동문등 10명은 약대동창회장 표창을 받았다.

또한 올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朴光埈동문을 비롯한 12명의 동문은 학위취득 축하패를 받았고, 신입회원중 제약학과를 졸업한 李禮利, 약학과를 졸업한 鄭允希동문은 약대동창회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同會는 이날 96년도 1학기 장학금으로 2백50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동문 자녀중에서 모교에 입학한 경사를 맞은 朴似龍동문의 아들 기홍군등 11명에게 축하기념품을 증정했다.

이어 95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승인, 9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가 있었으며, 朴萬基학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식후에 만찬을 함께 하며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의대동창회

全承煥동문 함춘棋聖에 등극

醫科大學同窓會(회장 李吉女)는 지난 11일 모교 제1교수회의실에서 제13회 회원친선 함춘 바둑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30여명의 동문이 참석해 기량을 겨뤘으며 한국기원의 高在熙사범의 실전명국해설과 「다음 한 수 알아맞추기」등이 참석자들의 흥미를 끌었다.

96년도 함춘棋聖 타이틀은 지난해에 이어 全承煥동문이 또 차지했으며, B조 우승자인 梁南吉동문에게는 한국기원이 인허하는 아마2단의 자격증이 수여됐다.

3조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대회의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A조(1, 2급): 우승 全承煥, 준우승 兪 建, 3위 崔君東, 장려상 李根植동문. B조(3, 4급): 우승 梁南吉, 준우승 李夏吉, 3위 金奎泰, 장려상 朴興吉동문. C조(4급이하): 우승 朴性九, 준우승 李枝馥, 3위 金鳳泰동문.

사대동창회

미개봉 영화감상

師範大學同窓會(회장 閔丙畯)는 지난 5일 종로 소재 영화관 「코아아트홀」에서 신년하례식을 겸한 영화감상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아아트홀 회장이자 한림출판사 대표인 林仁秀동문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자리에 참석한 20여명의 임원들은 국내 미개봉 영화인 「바베트의 만찬」을 감상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법대동창회

영전동문 축하패 전달

法科大學同窓會(회장 琴震鎬)는 지난 1월 11일 힐튼호텔 한라산룸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개교50주년이 되는 올해를 동창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계기로 삼고 동창회와 모교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지난 1월 30일에는 플라자호텔 덕수홀에서 2백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李壽成국무총리, 權五琦부총리겸 통일원장관, 金榮秀문화체육부장관등 최근 영전한 동문들에 대한 축하패 전달식이 있었다.

공대동창회

분담금·회비 납부 현황 보고

工科大學同窓會(회장 李達雨)는 지난 1월 15일 힐튼호텔 지리산룸에서 96년도 신년하례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韓松嶂명예회장, 李鎬仁부학장, 盧五鉉감사, 成宏模·姜泰晋총무이사를 비롯해 慶世浩·金允基부회장등 기과별 회장 20여명이 참석했다.

李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임원분들의 애정어린 협조와 관심덕분에 이만큼 동창회를 꾸려올 수 있었다』고 말하고 『올해로 개교 50주년을 맞는 모교를 위해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장인사에 이어 동창회 업무보고에서는 95년도 수입·지출 중간실적보고가 있었으며, 학과별 임원분담금 및 일반회비 납부현황이 보고됐다.

엔지니어하우스 건립기금 현황보고에서는 기금 출연자 및 신청자 명단이 소개됐으며, 학과별 모금 목표액에 관한 토의가 이어졌다.

상대동창회

장학금 1천7백만원 전달

張禮準회장은 장학금을 수여하고 후배들을 격려했다.

商科大學同窓會(회장 張禮準)는 지난 22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향상장학회」 96년도 1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張회장은 이날 경영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장학생 34명과 최우수성적 졸업자 및 최우수 논문작성자 6명에게 총 1천7백만원의 장학금과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하고 이들을 격려했다.

同會 회장단을 비롯한 이날 참석자들은 오찬을 함께 하며 선후배간의 격의없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志)

인천지부

신임회장에 沈晶求동문 선출

인천지부동창회 신임 沈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천支部同窓會(회장 李永好)는 지난 23일 동인천 뉴코아타운 양자강에서 임시총회 겸 간담회를 개최했다.

본회 金在淳회장, 鄭宗澤상임부회장, 李世震사무처장을 초청, 3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임원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沈晶求(57년 商大卒·국회의원)동문을 선출했으며 崔箕善인천광역시장, 兪炳世인천교육위 교육감, 李吉女중앙길병원이사장, 宋哉憲인천지법원장, 元正一인천지검 검사장을 고문으로 추대했다.

또한 각 단과대학동창회장, 간사를 부회장과 이사로 각각 선임했다.

신임 沈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백여명의 회원들이 힘을 모아 인천지부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천안지부

金明埈회장 선임

천안支部同窓會(회장 吳項根)는 지난 1월 29일 천안시내 신라부페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동문들은 임원개선을 통해 신임회장에 金明埈(63년 醫大卒·외과의원장)동문, 감사에 李昌淳(58년 齒大卒)·宋萬鍾(57년 農大卒)동문을 선출했으며 고문에 姜錫圭(50년 工大卒·호서대총장)·吳項根(56년 醫大卒·이비인후과원장)동문을 추대했다.

또한 부회장에 朴壽福(61년 農大卒)·徐仁炅(56년 師大卒)·尹亨老(64년 法大卒)동문, 총무에 李慶桓(79년 法大卒)동문, 재무간사에 金仁濟(69년 藥大卒)동문을 선임했다.

포항지부

신입생에 기념품 전달

포항支部同窓會(회장 尹鍾求)는 지난 1월 25일 시그너스호텔에서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申昌湜(산업기술과학연구소장)동문을 비롯 70여명의 동문이 참석해 덕담을 나누며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만찬을 함께 하며 금년 동창회사업으로 등산대회와 볼링대회를 1년에 2차례이상 개최하는 한편 동문들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올해 모교에 입학한 91명의 포항거주 학생들에게 기념품을 증정하고 합격을 축하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지부

金 孝 신임회장 취임

캐나다온타리오支部同窓會(회장 李京姬)는 지난 1월 27일 신년파티를 겸한 정기총회를 개최, 金 孝(63년 美大卒·토론토중앙일보사장)동문(사진)을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金회장은 2월 3일 롯데호텔에서 본회 李世震사무처장을 만나 『최근 한국을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어 캐나다의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한 것이 한국을 알리는데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하고 『1년에 3~4차례 운영위원회를 열어 중요 사안을 검토하고 전체의 조화를 중시해서 각 단과대학별로 임원을 선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분기별로 소식지를 만들어 동문들간의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개교 50주년을 맞아 모교발전기금 모금운동에도 성심성의껏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네소타지부

새회장에 宋暢源동문

미네소타支部同窓會(회장 權承霖)는 지난 10일 쉐라톤호텔에서 정기총회 겸 신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임원개선을 통해 신임회장으로 宋暢源(57년 文理大卒)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으며 부회장에 朱永暾(58년 農大卒)동문, 총무에 任漢慶(67년 文理大卒)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신임 宋회장은 그동안 동창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전임 權承霖회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뉴욕지부

전임 임원에게 공로패 증정

뉴욕支部同窓會(회장 權泰琄)는 지난 1월 27일 Long Island Great Neck에 소재한 Leonard연회장에서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1백5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모임은 1부 행사로 朴尙元동문 지휘의 교가제창, 權회장 인사말, 李鉉弘대사의 격려사 등이 이어졌으며 2부 여흥시간에는 모든 동문들이 춤을 추며 즐거운 밤을 보냈다.

한편 이날 모임에서 전임 吳仁錫회장과 金榮德이사장에게 공로패가 전달됐으며 李幸順(64년 美大卒)동문이 손수 도안한 개교 50주년 기념 로고가 새겨진 Stein이 배부됐다.

〈雙〉

약대22회

5월 「금오산」서 정총 열기로

약대22동기회(회장 金閏鍾)는 최근 제6집 명부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명부에는 96년도 행사계획과 동문 현황이 게재돼 있으며, 모든 동기들에게 2부씩 배포해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同會는 오는 5월 11일, 12일 양일에 걸쳐 경북 금오산도립공원에서 9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8월에는 국내는 물론 독일등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회원들도 참여하는 동기모임을 미국 LA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朴似龍동문의 차남 기홍(모교 치의예과)군등 4명의 동문 자녀가 모교에 입학하는 경사가 있어 회원들로부터 많은 축하를 받았다.

광주지부

「연회비제」 도입키로

광주支部同窓會(회장 吳炳文)는 지난 6일 신양파크호텔 1층 신양홀에서 9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6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결산·감사보고가 있었으며 宋彦鍾광주광역시장이 참석, 축사를 통해 『계속적으로 동문들이 힘을 합쳐 친목을 도모하고 동창회 발전에 힘쓰자』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연회비제 도입」을 의결하고 빠른 시일내에 9백여명의 회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대구지부

96년 사업논의

대구支部同窓會(회장 元虎出)는 지난 1월 30일 프린스호텔에서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60여명의 동문이 참석, 95년도 동창회 활동을 평가하고 96년 사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만찬에 이어 여흥시간을 갖고 동문들간의 우의와 친목을 돈독히 했다.

치대21회

회장에 申淳一동문

치대21동기회(회장 金華奎)는 최근 동기모임을 갖고 회장등 임원진을 새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신임회장에는 申淳一(신치과의원장)동문이 선출됐으며, 부회장에 金華奎(치과의원장), 총무에 金鍾萬(치과의원장), 감사에 鄭聖昌(모교교수)동문이 각각 선임됐다.

치대23회

崔昌德회장 선출

치대23동기회(회장 韓丙昭)는 지난 1일 「남강」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25명의 동문들은 임원개선을 통해 崔昌德(치과의원장) 동문을 1년 임기의 신임회장에 선출했다.

국어교육과

신입회원과 한자리

국어교육과동창회(회장 李應鎬)는 지난 1월 6일 코리아나호텔 스테이트룸에서 신년하례식을 개최했다.

李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동창회 활동에 관한 보고와 회원들의 동정 소개가 있은 후, 다과회가 열려 이날 참석한 50여명의 동문들은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며 우의를 다졌다.

원로 동문과 이번에 새로 입회한 새내기 동문이 한자리에 모여 따뜻하고 소담스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특히 정겨웠다.

불어교육과

신년하례식 가져

불어교육과동창회(회장 李起台)는 지난 2월 24일 「희망부페」 대연회실에서 신년하례식을 겸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60여명의 동문이 참석해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행대원27회

맹인소망원 방문

행대원27동기회(회장 金悰鎬)는 지난 10일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노곡리 소재 맹인소망원을 방문해 이들을 위로했다.

同會 회원들이 9년째 방문하고 있는 이곳 맹인소망원은 맹인이면서 정신박약 또는 신체불구등으로 이중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곳이다.

동문들은 이날 쌀 5가마와 라면 1백상자를 전달하고 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공대59회

총장 당선 축하연

공대59동기회(회장 金聖中)는 지난 14일 인터컨티넨탈호텔 실크로드룸에서 신년하례식을 겸한 鮮于仲皓총장 당선 축하연을 개최했다.

宋錫雄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同會 집행부 임원 및 자문위원등 13명이 참석해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志〉

법대26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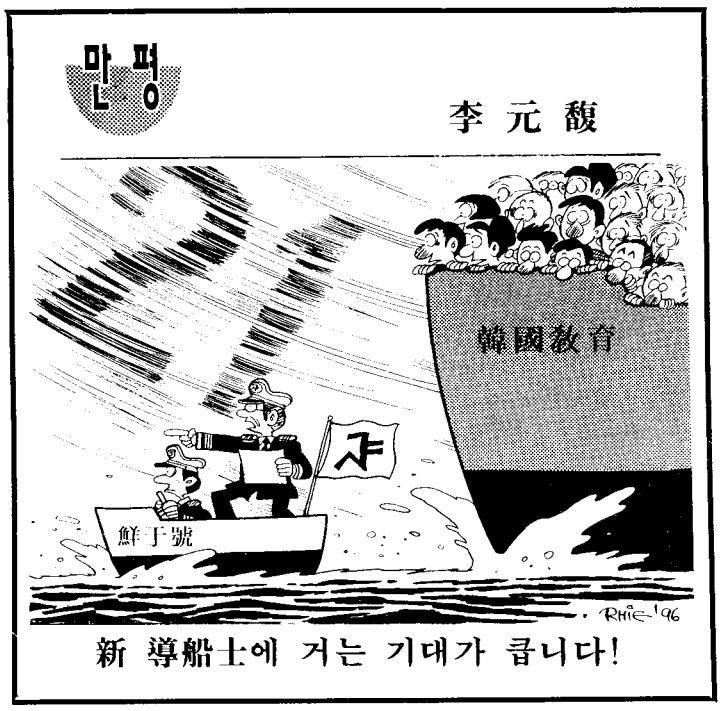
법대 입학자녀에 장학금 전달

俞重植회장이 백대현군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법대26동기회(회장 俞重植)는 지난 22일 대법원도서관장실에서 법대에 입학한 동기자녀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俞회장은 姜秉燮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의 아들 상묵(법대 2년)군과 白文奎의료보험연합 감사실장의 아들 대현(법대 1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등록금을 전달했다. 이어 文昌星(현대종합금융 부장), 李世震(서울대총동창회 사무처장), 韓相鎬(서울지법부장판사) 동문이 이들에게 축하선물을 전달했다.

장학금 전달식을 마친 동문들은 韓相鎬동문의 설명으로 대법원도서관 열람실과 우리나라 사법의 역사가 담긴 법원사 전시실을 둘러 보았다.



느티나무광장

SBS편성제작본부장

방송인의 역할

1980년 늦가을은 암울한 시기였다. 신군부가 언론정비라는 무기로 하루 아침에 방송사 문을 닫아 버렸다.

다행히 당시의 파행적인 조치는 강압적인 형태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일그러진 역사의 한 단면을 보듯 씁쓸한 느낌을 받게 된다.

그해 말 나는 17년간 정열을 불태웠던 방송을 스스로 포기하고 방황한 적이 있다. 그러나 1년도 안돼 내 인생의 진로가 어디인지 심각한 고민끝에 다시 방송이라는 울타리 속으로 진입했다.

젊은 시절 흔쾌하게 선택했던 방송이고 앞으로도 내 인생을 걸어야 할 방송이라는 직업에 대한 집착때문이었다.

어느 직업이든 각기 고유한 전문성을 축적해가며 성취해가는 보람을 느끼겠지만 방송업무는 그 동기부여부터 완성에 대한 희열이 남달리 높은 직업이라 생각된다.

사물보는 안목 예리해야

세월에 따라 직업에 대한 인기도 부침을 거듭하지만 요즘 취업전선에 방송인에 대한 선호도가 무척 높아 사원공모때마다 우리를 놀라게 한다.

시류에 편승해서 특정 직업으로 유행처럼 몰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토플점수가 뛰어나고 유려한 문장의 논설을 자랑한다고 방송계의 인재가 된다고 볼수는 없다.

방송인은 바른 가치관은 물론이고 사물을 보는 안목이 예리해야 하고 풍부한 정서도 갖추어야 한다. 또 창의적이고 감각적인 소양에다 선후배 구분없이 경쟁하는 적자생존을 극복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밖으로는 수많은 시청자의 날카로운 비평을 분석하고 수용할줄 알아야 한다.

시청자들은 방송이 그들의 수준을 무시한채 저급한 대중문화속으로 끌어들인다고 끊임없이 질책한다.

그러나 방송인들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입장이나 생각을 외면할 수가 없다.

투철한 프로정신을 요구해

신세대들은 서태지 신드롬에 몸살을 앓고 중장년층은 정치드라마를 지켜보며 카타르시스를 얻는다. 그런가하면 여성들은 멜로드라마의 사랑이야기에 심취하기도 한다.

바로 이런 여러 군상의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주는 지혜가 방송인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앞으로 무한대로 발전해 나갈 2천년 뉴미디어 시대는 방송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더 큰 역할을 예고하고 있다.

새시대의 방송을 이끌어갈 새 주역들은 보다 더 투철한 프로정신으로 무장된 일꾼들이 맡아주어야 할 것이다.

해마다 서울대 동문들의 방송입문이 큰 비중으로 높아지고 있다.

우리 방송계를 한단계 높일만한 뚜렷한 직업관을 가진 영재들이 미래의 한국방송계를 빛내주리라 확신한다.

〈본보 논설위원〉

서울대동문에고함

「문학의 해」를 맞이하여

徐基源(50년 商大入) 「문학의 해」조직위원장

올해가 「문학의 해」로 정해졌다.

그렇다해서 갑자기 우리 문학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문학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깊이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하지 않는 것보다는 좋을 듯하다.

문화예술의 기초

문학은 문화예술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영상매체의 번창때문에 활자매체 특히 문학이 상대적으로 밀리는 인상이긴 하다.

하지만 영상매체들의 밑받침도 많은 부분을 문학에 의존한다.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共榮이 가능하다.

입시제도의 영향도 있겠으나 근래 문학의 세례를 받지 않고 자라는 청소년들이 많다. 쉽고 편안하게 「화면」만 보려고 한다. 때문에 「문학의 즐거움」을 모르는 것이다.

나는 가끔 농담삼아 이런 소리를 한다.

『문학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40대부터 달라진다. 자기성장이 눈에 보이게 된다』

문학을 통한 상상력과 체험이 「말을 하기」 때문이다.

일회성 행사 지양

「문학의 해」의 사업으로는 근대한국문학의 자료수집과 정리(자료관설립의 추진), 정부계획인 한국문학번역사업에 참여하는 일.

해외동포문학인의 초청과 「한민족문학인대회」의 개최. 우리 문학의 史跡, 연고지등을 발굴하고 「문학지도」를 만드는 일.

우리 문학전반의 자료를 CD롬으로 만드는 일, 지역문학의 활성화….

여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되도록 일회성 행사는 줄이고자 한다.

독자에게 봉사하는 해

「문학의 해」는 문학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독자, 그리고 국민전체에게 보내는 「메시지」같은 것이다.

문학인이 독자들에게 봉사하는 해(항상 그런 것이지만)이기도 하다.

문학인들도 차제에 마음을 가다듬고 더 좋은 작품을 쓰는데 애를 쓸 것이다.

서울대 동문들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문학의 해」가 잘 되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동정

수 상

▲**鄭回甲**(48년 音大卒·모교명예교수)=최근 예술문학대상(음악부문)을 수상했다.

▲**朴晟容**(50년 文理大入·금호그룹회장·本會副會長)=지난 2월 15일 성희롱방지교육을 사원교육 필수과목으로 정하는등 성희롱문제에 관심을 기울인 공으로 전문직여성클럽 한국연맹이 시상하는 제3회 BPW 금상을 수상.

▲**金貞植**(56년 工大卒·대덕전자대표이사·本會理事)=최근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가 시상하는 「제5회 경제정의기업상」을 수상했다.

▲**安秉禧**(56년 文理大卒·모교교수)=3월 1일 가든호텔에서 제37회 3·1문화상 학술상(인문·사회과학부문)을 수상.

▲**金昌悅**(58년 法大卒·방송위원회위원장·本報論說委員)=지난 2월 8일 제6회 호암상(언론부문)수상자로 선정됐다.

▲**金讚煜**(59년 工大卒·이수화학공업대표이사·本會理事)=최근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가 시상하는 제5회 경제정의기업상 시상식에서 최우수기업상을 받았다.

▲**朴健裕**(64년 工大卒·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환경CFC연구부장)=3·1문화재단이 선정하는 제37회 3·1문화상 기술상을 수상.

▲**金基炳**(67년 行大院卒·롯데관광회장·本會理事)=최근 한국관광학회가 수여하는 「96 관광기업가상」(여행업부문)을 수상했다.

▲**曺秉昊**(69년 工大卒·동양기전대표이사)=최근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가 시상하는 제5회 경제정의기업상 시상식에서 최우수기업상을 받았다.

▲**金一燮**(69년 商大卒·삼일회계법인대표·本會理事)=최근 **李元馥**(66년 工大入·本報論說委員)덕성여대 교수의 삽화를 실어 함께 출간한 「세계로 가는 우리경영」(김영사刊)이 제7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자유경제출판문화상 우수도서로 선정됐다.

▲**康奉均**(69년 商大卒·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지난 2월 15일 세계화추진기획단 단장으로 재직시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등을 여성사회참여확대방안과제에 포함시키는데 기여한 공으로 전문직여성클럽 한국연맹이 시상하는 제3회 BPW금상을 수상했다.

▲**吳生根**(70년 文理大卒·모교교수)=최근 현대문학사가 선정하는 제41회 현대문학상 (평론부문)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동·선임

▲**孫寶基**(47년 文理大卒·단국대한국민족학연구소장·本會理事)=최근 연세대가 국내외 저명학자를 초빙, 강의토록 하는 제2회 「용재석좌교수」로 선정됐다.

▲**金在順**(51년 文理大卒·카톨릭대부총장)=지난 2월 5일 환경운동연합 전국대의원총회에서 **高 建**(60년 文理大卒·本會理事)명지대총장과 함께 공동대표로 추대됐다.

▲**李榮德**(52년 師大卒·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本會理事)=최근 한국청소년개발원 이사장에 선임됐다.

▲**劉俊相**(54년 商大卒·前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최근 예술의 전당 전시사업본부장에 임명됐다.

▲**具本湖**(55년 文理大卒·前한국개발연구원장·本會理事)=최근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이사회에서 울산대 제4대 총장에 선임됐다.

▲**金芝雲**(55년 文理大卒·성균관대명예교수)=최근 한국방송공사 이사에 선임됐다.

▲**李柱熙**(56년 工大卒·경희대교수)=최근 아주대에서 열린 제11회 파동 및 레이저 학술발표회 및 96년 한국광학회 정기총회에서 제4대 회장에 피선.

▲**成百詮**(56년 工大卒·한국해외기술공사 사장·本會理事)=지난 2월 27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주총에서 제11대 회장에 연임.

▲**林瑢圭**(56년 工大卒·前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최고자문기구인 안전기준자문위원회(ACSS)위원에 임명.

▲**張明洙**(56년 工大卒·전북대총장·本會理事)=최근 63빌딩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부회장에 선임됐다.

▲**車仁錫**(52년 文理大入·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本會理事)=최근 유네스코총회 개혁을 위한 특별실무단 위원에 위촉됐다.

▲**鮮于賢範**(57년 工大卒·대림엔지니어링사장)=최근 대림그룹 LNG발전사업 추진단 사장을 겸임하게 됐으며, 한국에너지공학회 회장에 선임됐다.

▲**金秋珪**(57년 文理大卒·동서증권고문·本會理事)=최근 동서투자자문 대표이사 회장에 선임됐다.

▲**尹鐘燁**(57년 文理大卒·홍익대교수·本會理事)=최근 국제펜클럽 후원인들의 모임인 국제펜재단 한국협회 창립총회에서 초대회장에 선출됐다.

▲**朱炳國**(57년 法大卒·종합금융협회장)=지난 2월 15일 종합금융협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연임됐다.

▲**崔東鎭**(58년 文理大卒·경수로사업기획단장)=지난 2월 16일 영국대사로 임명됐다.

▲**金光喜**(58년 法大卒·동아증권대표이사 사장·本會理事)=최근 동아증권 대표이사 회장으로 승진했다.

▲**徐德圭**(58년 商大卒·대구은행전무)=지난 2월 16일 대구은행장으로 승진했다.

▲**鄭溶文**(59년 工大卒·한솔정보통신연구원장)=지난 2월 17일 정보통신사업단의 기술부문을 총괄할 신임 사업단장에 선임됐다.

▲**金昇卿**(59년 商大卒·중소기업은행감사·本會理事)=지난 2월 17일 중소기업은행장으로 승진했다.

▲**李鍊衡**(59년 商大卒·부산은행전무)=최근 부산은행장으로 승진했다.

▲**金義卿**(60년 文理大卒·국제극예술협회 한국본부회장·本會理事)=최근 문예진흥원 강당에서 열린 제38차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재선임됐다.

▲**玄熙剛**(60년 文理大卒·서울시국제관계자문대사)=최근 스페인 대사에 임명됐다.

▲**李相周**(60년 師大卒·前울산대총장·本會理事)=최근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림대 이사회에서 신임총장에 선임됐다.

▲**金承業**(60년 醫大卒·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교수)=최근 同校 마리안느 코너 신경내과학 석좌교수로 선임됐으며 대우학술총서자연과학의 하나로 「신경조직배양」(민음사刊)을 출간했다.

▲**李益鏞**(61년 工大卒·동부그룹전무)=최근 도화종합기술공사 전무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張水榮**(61년 工大卒·포항공대총장)=최근 중국전자과학기술대학의 명예교수로 추대됐다.

▲**金永善**(62년 文理大卒·부산시국제관계자문대사)=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대사로 임명.

▲**李瑞鳳**(62년 文理大卒·화학연구소고분자소재연구부)=최근 한국화학연구소 임시이사회에서 신임 소장에 선임됐다.

▲**韓昇洲**(62년 文理大卒·前외무부장관)=최근 캐나다 아·태재단 이사에 임명됐다. 외국인이 이 재단의 이사로 임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宋憲一**(62년 法大卒·삼미부사장)=최근 삼미그룹 기획조정실장에 취임했다.

▲**張瑄燮**(62년 法大卒·駐프랑스대사)=최근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장에 임명됐다.

▲**梁精康**(62년 齒大卒·치과의원장·本會理事)=최근 인도 뭄베이에서 열린 제18차 아·태회의에서 임기 3년의 재무이사에 선출됐다.

▲**李啓鶴**(62년 師大卒·在美)=최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학실장에 취임했다.

▲**任德淳**(62년 師大卒·충북대교수·本會理事)=최근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장에 선임됐다.

▲**張文鉉**(63년 工大卒·포스데이타사장)=최근 한국시스템통합연구조합 정기총회에서 제3대 이사장에 선임됐다.

▲**金詰鎬**(63년 農大卒·충남대교수)=최근 건국대 상허기념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축산경영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됐다.

▲**李秉根**(63년 文理大卒·모교교수)=최근 진단학회 평의원회에서 신임회장에 선출됐다.

▲**李繁松**(63년 法大卒·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사회개발연구부장)=최근 서울시산하 시정개발연구원 제3대 원장에 취임.

▲**成夏鉉**(63년 商大卒·한국국토개발사장·本會理事)=최근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제3대 회장에 취임.

▲**洪英善**(63년 獸醫大卒·상아동물병원장)=최근 서울시 수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제16대 회장에 피선.

▲**金世鍾**(64년 工大卒·과학기술처원자력실장)=최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임시이사회에서 신임 원장에 선임됐다.

▲**成耆重**(64년 文理大卒·前포스데이타사장)=최근 중소기업중앙회 PCS(개인휴대통신) 사업단장에 임명됐다.

▲**陳政一**(64년 文理大卒·고려대교수·本會理事)=한국교수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2월 10일 영국왕립화학회 펠로(특별회원)로 선정.

▲**金義植**(64년 法大卒·롯데그룹기획조정실상무·本會理事)=최근 롯데그룹기획조정실 전무로 승진했다.

▲**李在春**(60년 法大入·외무부 제1차관보)=최근 유럽공동체(EC)대사로 임명됐다.

▲**文炳學**(64년 師大卒·재정경제원국장·本會理事)=최근 보험감독원 부원장에 내정됐다.

▲**李興卓**(64년 師大卒·한국외국어대교수)=최근 한국외국어대 학생생활연구소장겸 학생취업정보센터실장에 선임됐다.

▲**安性泰**(64년 師大卒·수산청

차장)= 지난 2월 14일 한국어선협회 회장에 임명됐다.

▲**趙利男**(64년 師大卒·금융결제원상무·本會理事)= 최근 한국정보처리전문가협회 정기이사회에서 부회장에 선임됐다.

▲**尹德宇**(64년 商大卒·동양생명보험대표이사사장)= 최근 동양생명보험 부회장으로 승진.

▲**姜光彦**(65년 工大卒·롯데물산상무)= 최근 롯데물산 전무로 승진했다.

▲**朴楊千**(65년 文理大卒·휴스턴총영사)= 최근 홍콩총영사로 임명됐다.

▲**金文雄**(65년 法大卒·제동흥산이사)= 최근 제동흥산 상무로 승진했다.

▲**崔榮二**(65년 商大卒·고합엔지니어링수석부사장)= 최근 고합엔지니어링 대표이사로 승진했다.

▲**林敬鎬**(65년 行大院卒·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本會理事)= 지난 2월 15일 발족한 「지방재정발전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취임했다.

▲**林盛基**(66년 文理大卒·고합엔지니어링부사장)= 최근 고합엔지니어링 사장으로 승진.

▲**禹鍾玉**(66년 師大卒·교원대교수)= 지난 2월 16일 한국교원대총장에 임명됐다.

▲**韓秀吉**(66년 商大卒·롯데제과전무·本會理事)= 지난 2월 17일 롯데제과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金鎭珠**(66년 商大卒·포철부사장·本會理事)= 최근 철강협회 산하기구로 발족한 「鋼구조건축(스틸컨스트럭션)클럽」의 초대회장에 취임했다.

▲**柳武成**(66년 商大卒·삼성항공대표·本會理事)= 최근 한국부정기항공사업협회 정기총회에서 제3대 회장에 선출됐다.

▲**李鳳圭**(66년 商大卒·삼미부사장)= 최근 삼미종합특수강 사장으로 승진했다.

▲**李彰浩**(67년 文理大卒·시카고총영사)= 최근 주미공사로 임명됐다.

▲**洪在雄**(67년 醫大卒·인하대교수)= 최근 한국에이즈연맹 제3차 정기총회에서 이사에 선임됐다.

▲**余仁甲**(68년 工大卒·피라미드테크놀러지대표)= 최근 한국정보처리전문가협회 정기이사회에서 부회장에 선임됐다.

▲**鄭文鎬**(68년 保大院卒·모교교수)= 최근 한국에이즈연맹 제3차 정기총회에서 이사에 선임됐다.

▲**張在龍**(69년 文理大卒·주미공사)= 최근 베네수엘라대사로 임명됐다.

▲**鄭萬祚**(69년 文理大卒·국민대교수)= 최근 진단학회 이사로 선임됐다.

▲**崔京甫**(69년 法大卒·외무부감사관·本會理事)= 최근 미얀마대사로 임명됐다.

▲**李益治**(69년 商大卒·현대증권부사장)= 최근 현대증권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했다.

▲**李炯載**(70년 工大卒·한진종합건설이사부장)= 최근 한진종합건설 이사로 승진했다.

▲**吳行兼**(70년 法大卒·인도공사)= 최근 휴스턴총영사로 자리를 옮겼다.

▲**徐浩福**(71년 工大卒·고합물산이사)= 최근 고합물산 상무로 승진했다.

▲**金學中**(71년 文理大卒·在美)= 최근 아남산업 반도체팀 고문으로 취임했다.

▲**盧泰敦**(71년 文理大卒·모교교수)= 최근 진단학회 이사로 선임됐다.

▲**文閏昌**(71년 商大卒·한진그룹이사부장)= 최근 인하대학부속병원 이사로 승진했다.

▲**郭贊浩**(71년 新大院卒·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진구협의회사무국장·本會理事)= 최근 고려대학교 기별교우회 모임인 高岩會 회장에 재선임됐다.

▲**金鶴坤**(73년 工大卒·한진건설부장)= 최근 한진건설 이사부장으로 승진했다.

▲**白基文**(73년 文理大卒·월드컵한국유치위원회국제협력실장)= 최근 가나대사로 임명.

▲**申榮洙**(74년 法大卒·문화일보사업국장)= 최근 21세기 한국사회의 새로운 개혁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족한 포럼 「청년네트워크 21」의 초대대표로 선출됐다.

▲**柳三泰**(74년 商大卒·고합물산상무대우)= 최근 고합물산 상무로 승진했다.

▲**沈瑛燮**(74년 保大院卒·한강환경관리청장·本會理事)= 지난 2월 9일 국립환경연구원장에 임명됐다.

▲**徐義鎬**(75년 工大卒·포항공대교수·本會理事)= 지난 2월 10일 통상산업부 산업기술정책자문위원에 선임됐다.

▲**白秉周**(75년 齒大卒·전북대교수)= 최근 전북대학교 치과대 학장에 선임됐다.

▲**崔鍾述**(75년 行大院卒·국무총리실 제2행정조정실행정관)= 최근 국무총리실 제4행정조정관실 심의관에 임명됐다.

▲**李康複**(77년 自然大卒·한진건설부장)= 최근 한진건설 이사부장으로 승진했다.

▲**李賢熙**(80년 人文大卒·모교교수)= 최근 진단학회 이사에 선임됐다.

▲**黃仁子**(82년 大學院卒·정무제2장관실담당관)= 최근 정무제2장관실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여성관련 국제협력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행사·출간

▲**李炳淅**(43년 農大卒·前농림수산부차관·한국사료협회장)= 지난 2월 23일 同會 대회의실에서 9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금년 주요사업 및 수지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白樂皓**(49년 音大卒·한국음악협회이사장·本會理事)= 지난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스위스 렌쯔버그에서 열린 국제음악협의회(IMC)집행위원회에 참석.

▲**許 塤**(51년 工大卒·대한화약기술학회장·本會理事)= 오는 3월 6일 과학기술회관 12층 과학클럽에서 고희기념출판기념회를 개최. 한편 미군사기술학회 서울지부연차총회에서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부회장에 선출됐다.

▲**白樂晥**(51년 醫大卒·인제대총장·本會副會長)= 최근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仁堂장학회를 통해 총 73명의 학생들에게 총3천1백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全泳杓**(60년 文理大卒·출판문화학회장)= 2월 23일 한국프레스센터 국화실에서 「출판·잡지의 시대적 상황」이란 주제로 제5회 학술포럼을 개최.

▲**曺定鎬**(60년 商大卒)= 오는 3월 5일 사회복지법인 「전원어린이집」을 개원한다.

▲**徐純貞**(64년 音大卒·단국대교수)= 지난 2월 13일 러시아 국립오케스트라 초청으로 모스크바 라디오 팰리스홀에서 오케스트라 지휘를 했다.

▲**朴英祚**(65년 商大卒·한국HOYA LENS사장·本會理事)= 지난 2월 14일 힐튼호텔에서 경기도 안산공단내에 注文렌즈공장 완공을 축하하는 자축행사를 가졌다.

▲**曺相鎬**(65년 行大院卒·창조장학회이사장·本會理事)= 지난 2월 26일 삼영학원 소강당에서 96년도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鄭東俊**(67년 行大院卒·한국인사관리자협회장)= 지난 2월 29일 63빌딩 국제회의실에서 한국능률협회 매니지먼트센터가 주관하는 사례발표회에서 「신인사제도의 혁신」을 주제로 강연.

▲**成樂承**(71년 行大院卒·한국방송광고공사사장·本會理事)= 최근 광고관련학과 대학생 2백여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방송광고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특강.

▲**李熙碩**(76년 法大卒·前국방부고등군사법원장·本會理事)= 지난 2월 10일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다. 전화: 592-1221.

▲**康錦實**(79년 法大卒·前서울고법판사·本會理事)=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다. 주소: 서울 서초동 99의3 신한국빌딩 702호 전화: 594-9500.

〈정리= 金志妍기자〉

동문을 찾아서

커버스토리

鮮于仲皓총장

"학문·민족·세계의 대학으로 키울터"

물흐르듯이 세상을 살려고 노력

대담 李世震편집주간

지난 23일 제21대 총장에 취임한 鮮于仲皓박사를 만나 모교의 운영방침과 개교 50주년 기념사업 등에 관해 의견을 들어보았다.

-취임 소감 한 말씀.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이지만 중요한 시기에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니 솔직히 두려움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임 총장님들을 비롯한 전 서울대인들이 쌓아온 전통이 있고 최고의 지혜를 갖춘 동료교수, 교직원, 학생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으로 학교발전에 동참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학 운영방침과 역점사업은.

『모교는 지난 87년에 이미 2001년까지의 발전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물론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하겠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현재의 시점까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대학의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 발전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의 부족 등 여건의 불충분함과 「그래도 서울대학교는 발전했다」는 식의 안이함 때문에 계획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대학원(연구)중심대학」 「학문의 대학, 민족의 대학, 세계의 대학」이라는 발전목표를 임기내에 실현하는 것, 적어도 그 기반을 확고하게 마련하는 것이 저의 운영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대 특별법」 제정, 「민족문화원」 및 「국제교류센터」 설치, 기초학문분야와 응용학문분야의 균형적인 발전 등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제2캠퍼스」 조성, 본고사 폐지 등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내적인 배경을 들자면, 관악캠퍼스가 비록 국내에서 가장 넓은 캠퍼스중 하나지만, 적정 수용 규모가 1만5천여명에 지나지 않아 3만명이 넘는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교육 및 환경을 제공하기에는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또한 통일한국을 대표하는 민족의 대학으로서의 미래지향적인 캠퍼스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외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확정된 바가 없고 이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사안이기도 하므로 관련 기관 및 국민들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고사 폐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모교가 본고사 실시를 고수함으로써 고교교육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한 수준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외에 또다른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던 점도 간과할 수 없지만 본고사를 시행함으로써 비정규 교육이 비대화되고 소수 과목 중심으로 고교교육이 왜곡되는 등 원치않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것이 본고사를 폐지하게 된 배경인데 그런만큼 최근 발표된 교육개혁안의 수학능력시험의 개선이나 내신제도 등 새로운 입시제도에 기대가 큽니다』

-개교 50주년 기념 사업은.

『모교는 작년 5월부터 개교 50주년 기념사업계획을 마련해 추진해왔습니다. 서울대 문화제, 모교 역사와 관련된 전시 및 발표회, 대규모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외에 기념우표발행, 기념품 제작 등의 사업을 통해 모든 국민이 경축하는 행사를 만들 예정입니다. 특히 동문들을 위해 모교 방문의 날을 거교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기념사업에 우선적으로 초대하는 등 서울대학교 50년 역사의 산증인인 동문들이 기쁨을 함께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평소의 생활 철학은.

〈약 력〉

△63년	서울대 공대 졸업
△73년	美콜로라도 주립대 수문학 공학박사
△74년	서울대 공대 교수
△87년	한국수문학회 부회장
△89년	서울대 중앙도서관장
△91년	대한토목학회 부회장
△94년	서울대 공대학장
△95년	서울대 부총장

『생활철학이라고 하니 무언가 대단히 심오한 말을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드는 군요.(웃음) 평소에 「항상 올바른 길을 걸으라」는 엄친의 말씀을 지키려 노력합니다. 그런데 너무 날카롭고 똑부러지는 삶을 요구하는 것만 같아서 이에 보충하는 의미로 제가 공부했던 水門學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찾아 「물 흐르듯이 세상을 살아라」는 것을 또다른 삶의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올바른 길을 걷되, 모든 것과 융화하면서 사는 삶이 최상의 삶이라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2만 동문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모교는 서울대인만의 대학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대학입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대인들부터 학교발전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민족과 국가, 나아가 세계인류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대승적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모교를 대표하여 학교발전의 당위성을 인식하고 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때 모교는 진정 「겨레와 함께 미래로」 힘찬 전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燮〉

명예교수컬럼

컴퓨터와 교육

金敎滿명예교수

필자는 圖案시대부터 오늘의 컴퓨터시대를 맞이하는 동안 두 격동기를 겪었다.

그 하나는 자가용 보급시절 「차가 필요없다」고 버티던 고집이 결국 「My car」라는 태풍에 휘말렸던 경험과 또 하나, 뉴 미디어 세계의 가속화로 컴퓨터시대를 맞이한 나의 처세이다.

컴맹이 되느냐 마느냐

필자는 5년전 컴퓨터를 구입했다. 「컴맹이 되느냐, 마느냐」를 망설이다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컴퓨터에 몰두하기로 결심하고 software: Adobe Illustrator5.5, Photo shop3.0을 배웠다. 그리고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에서 MM Director 4.0에 대한 강습도 받았다.

그 노력으로 이제 필자의 작품세계는 컴퓨터를 통해 칼라프린트되어 현실화되고 있다. 현대에 사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니 다행한 일이다.

최근 몇몇 대학의 디자인 졸업전을 관람했다. 디자인 수준은 뒤로 미루고, 작품의 표현들이 놀랍게도 디지탈화 되어 가고 있다. 손으로 그려 작가의 체취가 담긴 작품들은 점차 사라져가는 현상이다. 불과 5년전의 전시분위기와는 격세지감이 느껴졌다.

기능보다 창조성 중요

이제까지의 디자이너는 특수한 기능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컴퓨터가 다양한 기술을 제공하게 되면서 누구나 디자이너가 될 수 있고 디자인 표현이 용이해졌다. 이같은 현실의 디자인 교육에 대해 느낀 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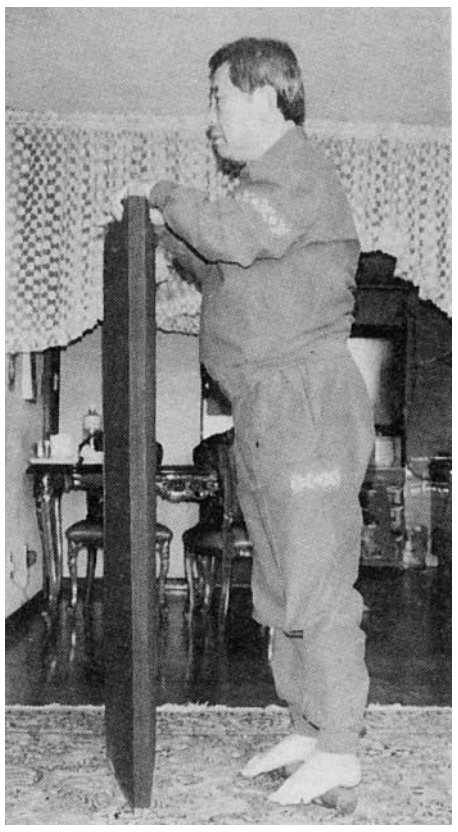
아름다움에 관한 감성훈련과 창조적 훈련은 컴퓨터와는 별개의 세계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어떠한 대상을 분별력과 감성을 가지고 보는 눈의 훈련, 예술가의 눈으로 또다른 세계를 발견하는 능력을 철저한 조형연습을 통하여 자각하게 되고, 심어지는 것이며, 발굴하게 되는 것이고, 구현되는 것이다.

오늘날, Technology의 발전은 끝이 없을 것이며, 내일의 Media는 어떻게 변화, 발전해 갈 것인지 그리고 Communication 디자인 분야는 또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해 갈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변혁기에 살고 있다.

그러나 Media에 의한 변화가 다가올수록 참다운 인간의 인성과 감성과 개성을 주장하고 표현하는 작품만이 높이 평가받을 수 있다는 Concept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요가로 혈액순환 도와

朴鍾勳(47년 藥大卒)동국제약 부회장



현재 72세인 필자는 45세 무렵까지 술과 담배를 무척이나 즐겼다. 그러던 어느날 신체의 이상을 느껴 금연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불어나는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했고 생각 끝에 합기도 도장을 찾아갔다.

직접 만든 기구로 지압효과

매일 이른 아침 약40분간 그곳에서 운동을 했는데 대충 요가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상생활에서는 취하지 않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초보자들도 쉽게 할 수 있는 동작 몇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 물구나무서기이다. 우선 반듯이 누워 손바닥을 땅에 닿게 둔다.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양다리를 올리는데 이때 무릎을 굽히지 말고 손으로 땅을 누르면서 허리와 등을 올린다. 허리가 충분히 올라가면 양손으로 허리를 잡고 다리가 수직이 되게 한다.

둘째, 다리 벌리기이다. 양다리를 좌우로 벌리고 앉는다. 양팔을 펴고 허리를 굽혀 몸을 앞으로 숙인다. 배꼽이 땅 바닥에 닿고 양다리가 직선이 되도록 뻗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수련한다.

셋째, 척추자극 운동이다. 필자는 척추에 대한 자극운동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반듯이 누워 직접 만든 기구를 허리밑에 깔고 척추가 기구의 양 바퀴안에 들어가도록 하여 아래에서부터 위로, 목부위까지 지압효과를 기대하면서 천천히 굴리기를 5, 6회 반복한다.

넷째, 발바닥 자극운동이다. 발바닥은 심장에서 가장 먼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부위를 자극하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잘 된다. 침구의학에서 말하는 인체의 12경락이 전부 발바닥과 통해 있고 이 경락들의 요소 요소에 많은 경혈들이 분포되어 있다. 腎經이라는 경락의 출발점인 湧泉, 足心 등의 경락이 이러한 예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혈이 있는 부위를 자극하면 노화방지에도 아주 좋다.

발바닥 자극으로 노화방지

신체의 어느 부위에 이상이 일어나면 발바닥의 어느 특정한 反射帶에 반사가 일어난다. 따라서 발바닥의 각 반사대를 자극하면 역으로 신체 각 부위의 이상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기구를 직접 만들어 이것을 딛고서서 약 5분간 발바닥 비비는 운동을 하는데 기구가 따로 없더라도 직경 12㎝ 정도의 대나무를 반으로 쪼개서 사용하면 좋고 조석으로 하루 2회 정도 하면 더욱 좋다.

이런일 합니다

21세기를 생각하는 모임

신아세아 질서연구회

李相禹회장

21세기에 새로운 모습으로 자리잡게 될 아세아의 신질서 창조작업에 관심을 가진 동문들이 뜻을 모아 창립한 「신아세아질서연구회」의 李相禹회장(61년 法大卒)을 만나보았다.

－창립 동기는.

『21세기는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전쟁과 가난 등에 시달려왔던 인류가 다음 세기에는 모든 사람이 자유와 복지, 평화를 누리는 세상, 그런 세계질서속에서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아연」은 이러한 새 세기의 물결을 바로 보고 우리의 중심을 바로 잡고자 하는 뜻에서 지난 93년 5월에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활동 사항은.

『매달 1회 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조찬강연회를 열고 있으며 25회를 맞는 동안 姜英勳·李洪九 前국무총리, 玄鴻柱·金瓊元·申東元대사등 외교전문가, 주한외국대사, 국내외 석학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을 모셨습니다.

또한 아시아 및 환태평양질서의 전문적인 연구를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몇몇의 학자들을 선정, 세계 각 지역으로 보내 현지감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재정형편상 베트남, 중국, 러시아에 각각 1명을 보냈지만 앞으로 인원을 꾸준히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계간지 「신아세아」발간을 비롯해 강연내용을 정리해 강연록을 만들거나 선정도서 등의 자료를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재원마련은.

『회원은 회비를 내는 정회원과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연구회원으로 나뉘는데, 회원들의 회비와 약간의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아연을 발기한 법대 14회와 15회 그리고 몇몇 후배들이 마음을 담아 재정적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활동하고 있는 회원과 가입 절차는.

『학계에 李泰旭·劉載天서강대교수, 언론계에 安秉勳조선일보 편집인, 葛天文 GTV사장, 趙昌化LG그룹미디어 고문, 정계에 崔秉烈 前서울시장, 郭正出국회의원, 재계에 許浚대우증권 회장, 李泰元 한진 사장, 孫京植제일제당 회장, 朴容晟 두산그룹 부회장등이 있으며 전·현직 외교관중에도 朴健雨·金世澤동문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원 가입은 신아연의 목적에 찬성하는 분으로 회원관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회비납부를 통해 입회가 가능합니다. 96년 1월 현재 일반회원은 1백79명이고, 기관회원이 21기관입니다. 일반회원의 자격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연구회원은 현재 대학이나 연구소에 몸담고 있는 학자에 한정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신아연은 아직 어립니다. 그만큼 뛰어난 의욕과 활동을 벌이고 있지요. 우리 모임은 단순한 연구기관으로만 머물기보다는 21세기를 맞으면서 정책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동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연락처:547－7161

대담 李世震편집주간

모임 探訪

치대 119회

6년제 첫 입학생겸 졸업생

발전기금 모으고 기념문집도 펴내

마치 소방서 신고 전화번호같은 「119」라는 명칭은 치대 예과 1회와 본과 19회라는 의미를 딴 것이다. 하지만 6년제 치과대학의 첫 입학생이자 졸업생인 이들은 사명감을 더해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구해낸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동숭동 문리대 교양학부 교정과 청량리 예과교정을 넘나들던 예과시절, 그당시 문화예술의 유행 일번지였던 소공동에서의 본과시절은 꽉 찬 교육과정과 교수님들의 「저 높은 기대」 때문에 이들에겐 무척 고달픈 시절이었다. 하지만 군복을 염색한 검은 바지와 모교 마크가 달린 곤색 교복을 자랑스럽게 입고 다니며 틈틈이 시간을 내 고전음악감상실에서 철학과 인생을 논하기도 하고 여대생들과 그룹미팅도 하며 나름대로 낭만적인 학창시절을 보냈다.

게다가 金光男(모교학장), 金貞子커플과 金花春, 李揆松커플이 부부가 됐으니 캠퍼스 커플도 2쌍이나 배출(?)했다. 金知浩, 林昌善동문의 자제처럼 부모의 길을 좇아 치과의사가 된 경우도 다른 동기회에 비해 많은 편이다.

회원들은 홀수달마다 19일에 모여 학술집담회를 갖고 있다. 양질의 진료를 하기 위해 최신 학문을 공부하는 것인데 이들의 학구열은 이미 정평이 나서 과반수가 넘는 동문이 박사학위를 받았거나 학위취득 예정에 있을 정도.

최근 졸업30주년을 기념해 6백만원 상당의 대형에어컨과 희귀자료집 등을 모교에 기증하는 한편 3천7백여만원을 모금해 모교발전기금으로 출연했다.

특히 동기들의 글을 모아 기념문집 「만난다는 것은」을 출간했는데 「사람끼리의 만남은 바로 자신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는 뜻으로 이런 제목을 붙였다고. 표지사진은 趙鳳淵동문이 해외에 나갔을 때 직접 찍은 것이고 표지제호는 尹興烈(아태치과의사회한국지부장)동문의 작품이다.

8박9일 일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로 기념여행을 다녀온 同會는 마무리 사업으로 앨범과 회원수첩 및 토론회 초록집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李俊杓회장과 任聖均총무가 이끌고 있는 치대119회는 영화감상회나 등산대회 등을 열어 동기들간의 친목을 더욱 다져나갈 계획이다. (志)

졸업30주년을 기념해 호주와 뉴질랜드로 여행을 다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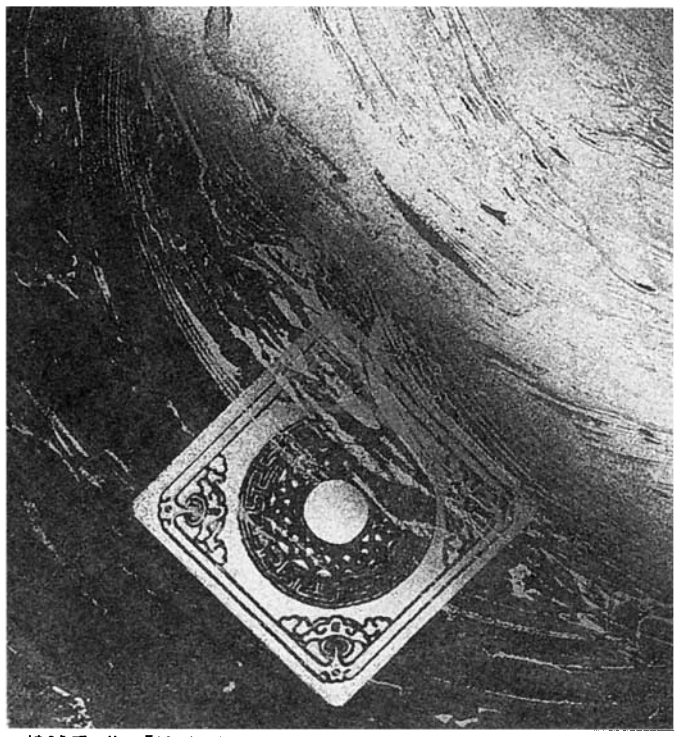
문화단신

展示

■趙誠愛판화작품전 —3월22일 갤러리메이

전통적인 우리의 미의식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조형언어로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는 趙誠愛(68년 美大卒)동문의 근작 판화전.

동판화의 섬세한 표현기법을 유감없이 살린 〈迷路〉, 〈幻〉시리즈는 추상 형상의 배경과 구상적 이미지의 형상을 서로 다른 기법으로 처리하여 뛰어난 조형적 구성과 장식성을 보여준다.



趙誠愛 作, 「迷路, Labyrinth, 9558」, 15 × 15㎝, Etching

公演

■玄敏子첼로독주회 —3월 8일 호암아트홀

연세대교수로 재직 중인 玄敏子(59년 音大入)동문은 그동안 독일, 미국, 스페인, 일본, 동남아 등에서 독주회를 비롯하여 실내악 연주와 오케스트라 협연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朱一葉바이올린독주회 —3월 19일 예술의 전당

서울아카데미앙상블 악장으로 있는 朱一葉(77년 音大卒)동문은 그동안 수차례의 뉴욕독주회를 비롯 마드리 실내악단, 인천시향, 경찰교향악단과 협연

을 해왔다.

■李明眞클라리넷독주회 —3월 20일 예술의 전당

한국음악협회 콩쿠르입상을 시작으로 여러차례의 독주회와 실내악 연주를 해온 李明眞(88년 音大卒)동문이 귀국독주회를 갖는다.

新刊

■在釜同窓會畵文集

최근 부산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교 미술대학 재부동창회의 동문작가 38명의 미술작품과 초대인사의 에세이를 국·영문 병행한 화문집이 출간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92년 10월에 부산 가람문화예술센터에서 열렸던 스누파展에 출품한 동문들의 미술작품과 에세이를 3년에 걸친 작업끝에 출간의 빛을 보게 되었다.

20대에서 60대에 걸친 동양화, 서양화, 조소, 공예, 산업디자인 등 5개분야의 다양한 작품세계를 엿볼 수 있다. 〈대우출판사刊〉

〈정리=安興燮기자〉

화제의 동문

첫 여성대사 李仁浩동문

"오랜 전통의 한국임을 알릴 터"

『여성의 국제사회진출의 물꼬를 트기 위해 총대를 매는 심경으로 수락했습니다. 학교에서 정년까지 남아 제몫을 다하려 했는데 이제는 이론을 실천에 옮겨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여성으로서는 국내 최초로 핀란드와 근접국가인 에스토니아대사로 임명된 李仁浩(55년 文理大入·모교교수)동문은 불모지나 다름없던 러시아 역사학을 개척해온 이 분야의 선도주자이자 거목이다.

후학양성과 연구에만 전념해온 李동문이 대사로 낙점된 것은 서양의 역사와 문학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 정통했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게다가 오랜 유학, 해외생활로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인 감각을 지녔다는 것도 크게 작용했다.

『대외관계는 경제면에 집중돼 있으나 문화교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적극 뛰어들 생각입니다. 우리나라가 오랜 전통과 문화적 유산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모교 2학년 재학중에 도미, 미국 웰슬리대와 래드클리프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李동문은 그동안 여성과 교육문제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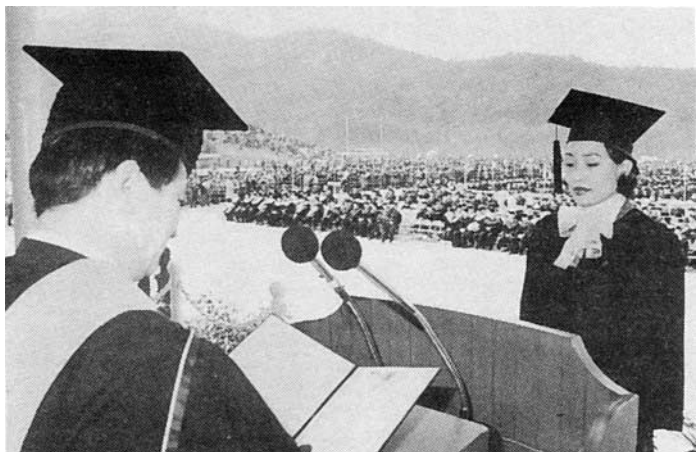
『제2, 제3의 여성대사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이 나아졌지만 남녀차별은 아직도 많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지요. 교육에도 국가차원의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기여입학제도등 운용의 묘를 살려 실시하는 것도 좋을 것같습니다』

李동문의 가족도 「서울대가족」이라 할 수 있는데 초대 성균관장 및 성대 부이사장을 지낸 義山 李明世(18년 法大卒)옹이 조부요, 부친 李鍾憙(前조흥銀상무)옹도 37년 모교 商大를 나왔다.

그외에도 동생 善浩(64년 商大卒·한국수출입銀이사), 文浩(64년 法大卒·LG그룹회장실사장), 成浩(72년 醫大卒·在美)씨도 모두 모교 출신이다. 〈志〉

모교소식

제50회 학위수여식 총6천1백58명 졸업



모교는 지난 26일 제50회 학위수여식을 거행했다.

모교(총장 鮮于仲皓)는 지난 26일 제50회 학위수여식을 관악캠퍼스 종합운동장에서 거행했다.

이 자리에는 李壽成국무총리, 본회 金在淳회장, 馬景錫부회장, 李誠載·李禮植상임이사, 李世震사무처장을 비롯한 전임 尹天柱·李賢宰·趙完圭총장과 모교 보직교수, 학부모등 2만여명이 참석했다. **(총장 식사, 총리 치사 및 회장 축사 요지 3면 게재)**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3천8백34명, 석사 1천8백86명, 박사 4백38명 등 총 6천1백58명이 학위를 받았다.

한편 이날 단과대별 수석졸업생에 대한 총장상과 동창회장상 시상이 거행됐는데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인문대:박선정-임웅암 △사회대:최지선-김대환 △자연대:함돈의-김석원 △가정대:차지민-신지애 △간호대:황성희-장미경 △경영대:김종흔-김건영 △공대:최정인-이원종 △농생대:정해원-최성호 △미대:권희정-설영환 △법대:최강국-홍기만 △사범대:김영진-권우진 △수의대:박진성-나준호 △약대:강부임-최성필 △음대:문현선-정혜윤 △의대:강희경-송은영 △치대:이정민-임동혁

제21대 모교 총장 취임식 거행

모교는 지난 23일 관악캠퍼스 문화관에서 安秉永교육부장관, 본회 金在淳회장, 尹天柱, 高柄翊, 李賢宰, 趙完圭, 金鍾云 전임총장, 연세대 宋 梓총장, 전남대 崔漢善총장, 강릉대 姜奎錫총장, 서울시립대 金鎭炫총장 등 교내외 인사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鮮于仲皓 제21대 총장 취임식을 가졌다.

鮮于총장은 취임사에서 『21세기를 앞둔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 대학은 명실상부하게 학문의 대학, 민족의 대학, 세계의 대학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며 대학의 질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대학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安秉永교육부장관, 高柄翊전임총장의 축사, 崔松和부총장의 열쇠전달이 있었으며 학생대표로 여송오(국사 4년)총학생회장이 축하의 꽃다발을 증정했다.

崔松和부총장 취임

지난 21일 모교 본부에서 신임 崔松和부총장의 취임식이 열렸다.

崔부총장은 63년 법대를 졸업하고 66년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은 후 법대 학장보, 학생부처장, 법학연구소 연구부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金商周교수등 16명 정년퇴임

지난 29일 교수 16명의 정년퇴임식이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에서 열렸다. 이번에 퇴임한 교수명단은 다음과 같다.

金鎭世교수(국문학), 李基文교수(국문학), 金文漢교수(건축학), 金極天교수(조선공학), 金商周교수(금속공학), 朱奉圭교수(농경제학), 辛東韶교수(임산공학), 文 龍교수(영어교육), 李東昇교수(독어교육), 李明學교수(기악), 李相燮교수(약학), 郭一龍교수(의학), 李德鏞교수(의학), 張潤錫교수(의학), 金鎭泰교수(치의학), 李正植교수(치의학) **(프로필 다음호에 게재)**

〈燮〉

총장 취임사 〈요지〉

우리 서울대학교는 일찍부터 「학문의 대학, 민족의 대학, 세계의 대학」을 지향해 오고 있습니다. 21세기를 4년 앞둔 시점에서 총장직을 맡은 저는 우리 대학의 이 지향 의지를 더욱 북돋아 대학 경영에 나서려 합니다.

서울대학교는 우선 「학문의 대학」이어야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대학은 현대 학문의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는 종합대학입니다. 우리는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균형있게, 그러면서도 합리적인 진흥 순서를 정해, 제한된 비용의 최대 활용성을 살려 육성해 가야 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는 또한 「민족의 대학」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대학은 국립대학이자 한국 최고의 대학이라는 명성에 부합하게, 국민 정신의 源流이자 嚮導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전 학내에 「민족 문화원」을 설립하고 기존의 관련 학과·학부와 도서관, 규장각, 박물관 등을 연계하여 우리 대학을 명실공히 한국학의 본산으로 만들려 합니다.

또한 우리는 「민족의 대학」으로서 이북과의 학문적·문화적 교류 방안도 찾아, 이질화된 남북 문화를 화합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민족 최대의 숙제인 남북 통일 작업에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해 나갈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서울대학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학으로서 21세기에는 기필코 「세계의 대학」으로 비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방만해진 학교 조직과 연구·교육 체제를 재정비함은 물론, 미비한 학교 시설을 획기적으로 보완하고, 태부족인 재원을 대폭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이 「서울대학교법」을 제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세계 어디에나 「한국에는 서울대학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외국의 학자와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 유학하여 우리 학문과 문물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 대학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대도약을 하지 못하면, 우리 대학의 장래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도 내용없는 얘기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서울대학을 세계일류 대학으로 키워내야 함은 서울대학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의 장래가 우리에게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 대학을 이만큼까지 이끌어 주셨던 분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으로 진리 탐구에 나선 우리들을 격려해 주실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마음깊이 새기면서, 우리 모두 민족 문화 창달의 주역으로서 「겨레와 함께 미래로」 힘찬 전진을 계속합시다.

1996. 2. 23.

서울대학교총장 鮮 于 仲 皓

서울大學校 同窓會報

동창회 지표 •참 여 •협 력 •영 광

제216호 1976. 4. 13 등록번호(서)라-137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6년 3월 1일

2월호를 읽고

관련사진을 크게 실었으면…

개교 50주년 기념 앰블렘이 선명한 2월호는 표지부터가 발아보는 모든 동문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커버스토리를 장식한 여성임원들의 활약상을 대하고 보니 남성동문들이 위축감(?)을 느낄만도 하다. 그러나 李仁子회장의 말대로 우리 여성동문들이 대외활동에 아직도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동감하며 우리 동창회보가 여성동문의 활약상을 발굴하는 작업을 많이 해주길 기대한다.

옥의 티라고 한다면 동창회 소식란에 간호대동창회 기사관련 사진이 너무 작아 알아보기가 힘들었다. 앞으로는 사진을 되도록 크게 실어 주었으면 한다.

鄭東俊(67년 行大院卒)한국인사관리자협회장

지방회원의 활약에 관심을…

동창회보가 회를 거듭하면서 지면이 증가되고 그 내용도 알차고 다양해지고 있음은 기분좋은 일이다.

지난호에 실린 여성 동문들의 활발한 사회활동에 찬사를 보낸다. 가정을 돌보면서 동시에 사회에서 활동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동창회보가 많은 여성동문들에게 생기발랄했던 학창생활을 회상케 하고 기분을 좋게 해주리라 기대해본다.

한가지 당부하자면 지방회원들의 활발한 활동에도 관심을 갖고 기사화한다면 지부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李吉才(72년 藥大卒) 동원한의원장

뜨락

出生性比의 불균형

鄭世華(57년 文理大卒)여성개발원장

오늘날 각종 통계숫자들은 하나의 언어와 같이 우리 생활 속에 자리잡고 있다. 인구동태, 경제활동 참가율, 각급 학교 진학율, GNP 등에서 표시되는 수치들은 곧 우리 사회의 모습을 웅변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그 가운데 최근 특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수치가 있다.

100대 115.6

즉 여아 100명 당 남아수 115.6이라는 1994년도 우리나라 출생성비는 한국인의 극단적인 남아선호사상을 단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

초등학생 여자짝 없어

원래 자연적인 출생성비는 100대 105이다. 이 신이 내려준 황금비율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사회를 균형있는 남녀공생사회로 유지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과학적 수단을 동원하여 인위적으로 딸낳기를 기피함으로써 남녀의 성비는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신학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이 울면서 귀가할 때 그 이유의 십 중 팔구는 여자 짝이 없기 때문이라는 풀이도 있다.

이 어린이들이 성장하여 성인이 된 사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동성애·성폭력 급증 우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에는 결혼적령기 남자 중 23%는 신부감을 구하지 못하리라는 전망이다. 심각하게는 동성애, 성폭력의 막대한 증가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성비의 불균형은 우리 사회가 어두운 곳을 향해 달리고 있다는 적신호인 셈이다.

「사회가 아무리 변해도 남자로 태어나야…」 한다는 한국인의 의식의 뿌리는 무엇에 기인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여성을 제2의 성으로 종속시키고 있는 각종 관행, 규제 등의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 정치발전, 세계화 등의 화려한 변화과정에서도 여전히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버거운 우리 사회….

우리 국민 모두가 정말로 시급하고 심각하게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의미하는 것과 그 해결책을 모색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 사람 「실력」 있어?

孫敬愛(76년 保大院卒)성모의원장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직업만을 가지고 인품 내지는 사회적 지위, 나아가서 생활태도까지도 어느 정도의 틀에 박힌 선입견을 가진 채 쉽게 판단하게 된다. 이 경우 자기가 생각했던 그 틀에서 벗어나게 되면 더 큰 실망을 하게 되고 나쁜쪽으로 비판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서구사회보다 직업에 대한 편견이 심한 편이어서 더욱 그렇지 않나 생각된다.

특수직 종사자의 배타성

특수한 기술직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서기까지 남다른 노력과 고생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다른 평범한 직종의 종사자들 보다도 부족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중에서도 우월감이나 이기심이 강할 수 있고 더 심한 경우에는 자만심에 빠져서 배타적이 되기 쉽고 비판적인 경향이 심해지면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없기때문에 사회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투철한 사명감이나 봉사정신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반 개업의에게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심이 부족한 경우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고 잘못하면 후회스럽고 부끄러운 사건들도 일으키게 된다.

얼마전 TV 프로에서 의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흥미있고 감동적인 영화를 보았다. 내용은 어느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잘생기고 멋진 심장이식수술 권위자인 외과의사가 뜻하지 않게 후두암 진단을 받고 다른 암환자들속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그 과정에서 환자로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게 되면서 성숙한 인격자로 변신하여 남을 배려하며 가정을 중히 여기고 참다운 인술을 베푸는 새로운 의사로 탄생한다는 줄거리였다.

존경받을 인격자 아쉬워

많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의무에 충실한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렇다고 그 사람의 생활태도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존경할만하며, 사회적 규범에 비추어 모범적이거나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느날 의사친구들 모임에서 『그사람 실력있어?』 하는 대화를 듣고 상식적인 유능한 의사로 해석하고 대화에 끼어들었다가 그 「실력」이라는 단어가 「금전보유능력」을 가리키는 말이었음을 알고는 적지않게 실망을 했다. 부끄러운 일이다.

낮은 의료보험수가 때문에 피치못할 방편이라고는 하지만 참다운 의학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설이 아니고 적자운영을 만회하기 위해서 생겨나는 특수크리닉이나 새로운 기계도입과 시설확장으로 바빠진 대형종합병원에도 문제가 있다.

정당한 노력의 댓가를 기대하면서 이웃과 지역사회에서 모범적인 생활인으로, 존경할만한 인격자로 많은 사람에게 기억되기를 바라는 것이 헛된 꿈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란다.

"신입회원의 입회를 환영합니다"

학 사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김정곤 류하영 박재연 배수찬 서정민 신중진 양정원 윤경은 윤 진 이경은 이상신 이수형 이유진 정명숙 최인화 김형금 염호철 이형석 정영훈 송원용 신성호 임재욱 조형진 홍석현 고정훈 박 건 임희섭 공환호 김태석 김원철 김경진 오현미

▲중어중문학과

김지현 김희진 윤경원 이현정 홍주연 김희락 류상현 이원중 황인영 곽태신 문창윤 백재석 윤성노 나정수 양창수 이한일 정진욱 황재선 나원식 이한구 김종석 신유근 구정화

▲영어영문학과

김윤경 김지수 박설아 박수정 박진아 백승빈 신현철 이상선 임은경 장영실 정홍민 조수경 한경민 음 준 글렌최 김수진 김정미 제명호 김선욱 김보민 김정일 박현주 이광진 이헌영 조신제 최성수

▲불어불문학과

경순이 김현철 박선정 이필영 이혜영 임은경 최율리 심영아 김진형 문경훈 서경석 유나니 장대규 정영리 견종호 권인오 박상용 권민석 김유기 박형권 이영환 전성호 이승국 이철희 은선진

▲독어독문학과

김노경 남길정 명종윤 안세연 민경식 박정규 홍성민 구영민 심창현 유병철 정준모 최현우 고영균 손일동

▲노어노문학과

강병수 고상미 변성호 이선영 이지연 최수연 허미영 신선주 김태연 김태욱 신승철 김기래 김병호 김승문 정성엽 김광호 김철민 류재수 박도영 배지원 이상화 임정규 윤정혁

▲서어서문학과

고유경 구교실 박소영 이승은 김영빈 정동선 김기덕 김지엽 박문환 손정현 조병상 최철훈 탁연직 박영광 장재준

▲언어학과

공정혜 김지은 박상준 박정은 성열원 양수경 윤경희 김용호 이경재 이동익 조영준 박만호 정경식 최익환

▲국사학과

강미영 김미숙 김익채 이광렬 이달순 장지연 김경록 김대원 권성연 김항식 박현석 최복규 한건섭 권영상 서영표 송정우 김용태 김종옥 김필국 노관범 박종석 이기영 이남진 이응주 이헌진 정찬교 최규연 황수동 정승우 정종권

▲동양사학과

박인원 심정섭 전형구 강혜정 이은경 이지숙 손종민 이강표 이호경 김영근 배재범

▲서양사학과

문수현 안상욱 최정미 강창부 박동균 강기정 김현동 박 홍 이수돈

▲철학과

고승학 김보경 김종승 이정수 김태호 노재현 박응석 배선영 이원석 김영수 김인조 손화철 안주식 백승우 빈준화 조홍원 최경송 김재혁 김소강

▲종교학과

김 용 송현범 원영주 윤혜주 이광학 김세준 박미나 이창익 김용덕 임은욱 이우재

▲미학과

김새별 박세은 박수진 여수진 옥혜령 유영진 유지은 이상엽 전정훈 최유리 김지훈 이승원 구본선 김인호 오기환 이성현

▲고고미술사학과

김새날 김선지 김인혜 신상효 우정아 임웅암 장윤선 장인주 강성명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강상욱 김성훈 박용우 이상룡 이윤서 장정진 조용지 원도연 고평석 권백신 은종훈 이상신 주인식 이준일 부 완 서영기 신장식 이성훈 장준영 전태진 강석필 류제명 임갑수 황기태 황인산 김 구 이민호 이창조 주일식

▲외교학과

김상록 김선일 김중배 성종원 유영수 이동수 이수미 이재욱 이현석 임동빈 황지환 조현선 강을영 강한주 김보형 김종호 김지희 이정민 하위영 허길상 황보승혁 김광동 안재석 이성계 조일원 김인성 김종성 이명신 이 철 홍석민 홍석빈

▲경제학과

도태영 공용성 김민영 김삼진 김진욱 류승화 민정기 박경찬 박준식 박준우 박희찬 변제호 서정일 서철수 손지송 손창호 송원호 송호신 엄희준 오기남 유병희 이동렬 이예현 이정현 이정희 임 진 전병렬 전성민 정우석 정희섭 최성호 송민재 임진국 안홍기 강성호 김대환 김동현 김원목 김종필 김준호 김중곤 김희중 류지열 박인철 신동열 신종엽 오대현 윤헌관 이관호 이동훈 이수진 이원희 이은상 임경묵 정해주 최태룡 하성환 한광희 한재현 허성우 허성욱 홍성기 황인웅 강성원 김인수 김제현 김중훈 노형식 노혜건 류창석 민인식 박근우 박성근 박정성 박종우 박지청 박충기 송민규 심준보 양신호 오진철 유병훈 이동훈 이윤복 장창수 진 익 채진호 서덕식 강성철 강성팔 강승희 강태욱 권병규 김광회 김우진 김창환 라희량 민규동 박광식 박병훈 박성준 박인천 박재진 박정우 박진오 방호정 배영석 서현우 성시경 손병구 심병직 안도용 안정식 우상욱 이경식 이대희 이동률 이보성 이상우 이영호 이원주 이정선 이지호 임철규 전종욱 정인근 조민석 조일상 조해찬 탁윤성 하형인 한진수 홍석린 구명서 박현식 오기환 이호섭 최기철 고봉석

▲국제경제학과

권기원 김상완 김수이 김용두 김진우 남기욱 신정아 유창연 윤영노 윤용순 윤형욱 이영민 이주섭 임동영 주현준 조상욱 김세연 김홍석 류성원 이지현 최진오 최한수 고광민 김남석 김민수 김민식 김수훤 김정필 박수철 손주경 송상현 신정호 이석배 이정민 장영수 전명훈 홍승현 황인이 이진헌 권태형 김태균 박상준 박종석 성만석 성재호 우영진 윤영은 이덕희 이승렬 이정열 장석헌 장영재 장욱진 장준호 전성복 전정하 정희엽 조성훈 최인종 최홍규 강명구 강상현 이상민 양기철

▲사회학과

고은영 길정훈 김승현 김유나 오남수 임채윤 전경대 심성민 양정대 이명진 이영민 정준영 권혁우 김광호 박영수 박형민 임 민 홍기호 김영일 김태훈 김홍중 박성덕 송웅달 허우녕 허 인 홍성창 이홍배 최현우

▲인류학과

고동욱 구선실 박소현 서인석 전수연 정유선 황혜영 구민경 김재욱 김진만 안재주 이인수 최내현 김현욱 배삼식 이경묵 정재학 최준영 홍 현 황광수 유영석

▲심리학과

강재정 송현주 여정하 이정희 장수은 홍현식 박선주 김경용 최진영 김영균 김태균 박건영 선현수 우승도 이건욱 이인아 김성균 이양구

▲지리학과

김애란 문희정 안재성 이은아 정수용 정재곤 최지선 김종철 김종호 유준상 이진홍 최지훈 최태진 김동열 노규현 송남섭 양희천 정혜연 김영일 박 승 이명용 이상윤 이주황 이준우 인근렬 진갑현 이용호 전재광 조영준

▲사회복지학과

이진아 강래윤 김수완 남기선 박근용 송진우 양운석 윤석영 이주원 황보람 조연희 민노형 한승복 류진하 손홍대 이걸호 황선준 민의식 안병준 장기해 장창식 최범신 한병호 황승현 정혜숙 이동익

▲신문학과

국현호 김민경 김은주 문향란 송용준 송춘실 이규란 이승하 허세은 홍지영 안준현 이가영 김남두 김주형 노상훈 박진우 정용욱 조영욱 남도영 배경택 이종혁 최동원 한경택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강충오 김상겸 김승일 박성주 박종도 손정교 송현길 심상호 윤영선 이석규 이주영 조일환 최광해 최성희 최헌석 추미양 탁기돈 강순부 강수용 강 욱 강정한 김현영 송명순 양승용 이재영 이정훈 이중조 장유성 심규현 이동영 이지훈 조재성 최승일 권경수 김용복 서창배 심경섭 심문보 오병근 남길남 이승완 정경준 구용회

▲계산통계학과

김성호 박재영 하정철 김용훈 문규환 이기수 조병욱 최돈선 길우정 김동연 문기영 박기현 박은수 이경분 이명희 이성진 이승준 이은영 임효준 최민주 허재혁 허태성 이혁희 유아영 김대원 김지혜 김진민 박근영 박영희 양정섭 위상준 김기웅 김지영 노맹석 박봉균 박성동 유맹수 주요한 최영철 남상욱 유규상

▲물리학과

박종원 박지웅 강보수 권형중 김기환 김성윤 김성철 김수현 김종관 김지철 김창환 문상훈 문진배 박기성 박수찬 배준호 서동석 이민철 이승우 정동원 정세욱 조정후 최병희 피웅환 하경수 함돈희 함웅돈 김순익 김준식 오상문 윤종철 최재혁 허민섭 유승협 윤경훈 이종진 장원석 천대식 박영수 심명호 이범우 이성우 최영만 홍훈의 김익철 이 다 김한준 나도근

▲천문학과

박연상 이보원 이종혁 최재은 강지오 김정구 박재성 김석원 이정원 이종혁 문경원 최한규

▲화학과

권정환 김상균 김종엽 김종욱 김준식 김지형 김희수 모윤숙 문정희 민정현 박성진 방윤수 배성민 손성욱 송호영 신기석 신미숙 안형준 오정욱 윤재웅 이강택 이수현 이영균 이윤구 이은혜 이임표 이태우 정훈휘 조남정 하태경 한영주 허용석 홍지영 김정연 이우경 이학주 전문국 정민영 김연환 신동규 안재영 양진국 여은석 이윤권 정동훈 안진호 원 훈 이수재 이 정 인병대 정재훈 정동회

▲생물학과

김국현 김태곤 박규범 성시범 송주화 유원영 이상임 전중환 정주영 조현정 천영진 박경식 노환춘 박혁준

▲분자생물학과

김상균 김승해 김신석 김현희 김형철 박영준 박인혜 손병석 이석원 이종철 전형옥 이윤영 최은정 한위권

▲미생물학과

강석현 강일남 구병모 김미경 김진희 김형철 류현조 박돈규 서범수 이동욱 이영주 이종주 이진성 정관호 정우현 허준렬 황혜진 이대훈 명진종 문동현 오향이 윤성일 이병훈 이상문 공우석

▲대기과학과

김원종 김태준 봉수찬 신윤정 유진호 이용호 이조한 정지현 최경옥 문병권 박문수 하정환 홍성출

▲지질과학과

강상호 김지훈 김현수 박혜준 신동훈 윤팔희 이상수 이정현 장철순 정직한 김성준 박영진 박준성 임현수 손영철 이진용 조재현

▲해양학과

박상철 오경찬 오동찬 유제선 이승현 이영호 하호경 나상철 송기돈 황준희 권영오 박병렬 부상일 이경환 이규태 이정석 한준희 구원철 권영환 박경채 박현수 변종화 임운혁 정재풍 조용배 황민상 신창록

◇가정대학

▲식품영양학과

강기화 강소진 강영숙 강지원 권은현 김선아 김훈아 남정현 박송이 박영은 서정희 신지애 유도경 윤희정 이남연 이영미 이윤종 이은아 이주연 이해정 임은실 임창정 황자영 황조혜 전리야 배니수 권소연 최혜경 홍소정 이종민 허경화

▲의류학과

고원종 김경원 김선아 김수진 김순영 김유로 김주연 김혜라 문성림 문혜정 박성신 박은경 박준휘 박홍인 양지원 유 정 윤혜진 이경미 이기연 이숙영 임수현 임은혁 장숙인 정유진 정희순 조방실 조소양 조소영 차지민 하정은 한상아 한영윤 황정심 황정희 양희연 추호정 최건호

▲소비자아동학과

강효진 고정임 김봉성 김선주 김예나 김용신 김은미 나종연 류소영 박상혜 서옥남 서운주 안성윤 안수미 여상희 오정희 원시연 이옥정 이진희 장영은 조성민 조윤정 황재호 국수현 김기동 김은희 성현주 심현주 이윤주 허정원 정정기 이영숙

◇경영대학

▲경영학과

강성욱 고재신 구본수 김건영 김규배 김도영 김범준 김 원 김종범 김종욱 김종흔 김주석 김태한 김희석 노재웅 박기완 박서영 박성훈 박아란 박영석 반 경 백준승 변성현 손호승 오상준 옥성환 이경훈 이수연 이용재 이재현 이환권 정기석 정성진 정준호 조중재 최도영 최영준 최원준 최인석 홍경은 황태영 전혜원 이병명 이용철 이주은

류택희 김대중 김병관 김상조 김우식 김태형 김현민 박경홍 박성규 박진환 박형준 서승욱 석현수 송요한 어경석 오정균 유인식 이건수 이경준 이기선 이재수 이찬형 임정수 전 훈 정무섭 한광희 형진휘 임상우 최영둘 강정수 고동환 국병철 김경철 김동현 김동휘 김상원 김성기 김승모 김영준 김영호 김용호 김 웅 김태근 남근우 류정석 문성준 박광규 박남규 박두원 박병식 박상준 박영훈 박태원 백동호 선기훈 송호림 유원식 윤형식 이상화 이영성 이정성 임기찬 최관호 최재헌 최중기 최환원 허민구 허우성 윤석진 강두현 강동수 강홍구 고영진 구성민 국윤길 권기엽 권주상 김경태 김광제 김기홍 김동환 김병운 김석태 김완중 김재형 김정섭 김지영 김진호 김치우 김한석 김형찬 나영호 노근창 류승철 류시관 문성희 민광훈 박문규 박성호 박용철 박종만 변인섭 서정걸 성시열 신원석 신진호 심을두 양한결 이경구 이규대 이기범 이동원 이동원 이상석 이영호 이재광 이재창 이창하 이태현 이평재 이해돈 임재현 임창송 장영주 정경균 정경인 정승욱 정준희 정한표 조경훈 조영집 조재협 지광문 최기보 최병진 최원일 최진만 한태화 홍기수 황인석 장일준 김용현 김창래 서호익 오병문 우한균 이강호 한재종 백대현 한병학

◇공과대학

▲건축학과

강상훈 고정석 권영상 권 준 김경록 김남곤 김상희 김성한 김은배 김정수 김정헌 박병준 박영섭 박원흠 서정일 성민기 신현정 신현지 안병호 양승훈 위진복 이상현 이종혁 정대식 정인호 조봉호 조용호 차희성 최승묵 홍경모 홍승모 황정현 이현우 한귀진 권민혁 김인호 류성룡 박영석 박유신 원병훈 이은행 정봉찬 지배근 한승훈 지승은 오재욱 박세욱 봉일범 송해은 장명훈 김대자 선종훈 정우용 정철우

▲공업화학과

강태희 강택진 김승철 김시연 김일원 김종훈 김준홍 김준희 류상욱 류지헌 박성규 박성규 박준택 박형준 변장웅 서성용 서태석 소진언 안원영 원종섭 유태현 이귀종 이종화 이철호 이태경 이호상 이희창 정혁성 조국영 주형민 최석주 황범열 고이삭 곽현구 김재현 이성하 이현민 장종현 김의균 서영준 이용은 현승일 김정훈 노혜용 이제욱 한상현

▲금속공학과

김강오 김동석 김동익 김상균 김태일 나성환 남호석 류곤식 송원용 신동우 신형준 안동환 엄태민 윤태식 이도화 이상현 임주완 정우석 정원철 홍병희 홍재화 박상준 이동각 이 호 정채오 강윤선 김동원 백찬준 설동진 손승락 안진형 이두한 이상철 김진섭 변정수 이명규 이훈휘 정광옥 정훈재 조용석 이성호 이희열 홍희정 황석민

▲기계공학과

강정식 김대영 김만식 김민성 김상수 김순관 김영재 김은석 김정용 김정현 김정환 김중경 김태완 류원형 민철홍 박성배 박성진 박정해 서정현 신서원 양인범 우재현 위대현 유춘상 윤석호 윤정구 윤한석 이기주 이동훈 이성희 이윤빈 이정훈 이태경 임종우 장영엽 전세정 전용준 전창성 정기현 조진철 지유철 천인규 최회명 하재훈 황정훈 서송문 김창현 도영훈 서동환 서종원 심주석 이태훈 조영현 진수성 남진현 안재호 오세백 우동기 이주형 정재준 박철웅 양승연 최승완 현기탁

▲기계설계학과

강인규 공정흥 권귀석 김기동 김대용 김대운 김동호 김보성 김종일 김중곤 김창엽 김호영 김홍욱 박상영 박승훈 박종범 박준형 박창범 박현철 부장원 송달조 신현욱 심운택 양두열 양희구 오명훈 윤성철 윤찬재 이강원 이동성 이동재 이동훈 이병우 이성도 이승엽 이용훈 이진원 이형신 전형국 정 석 정지덕 정찬호 제성욱 조주형 조한상 최영식 최우석 최지현 한제선 홍주의 황성원 황 찬 김은숙 강성신 김낙현 이준영 조도연 황재철 황 철 김동현 한상준 윤종기 최인혁 김태환

▲산업공학과

강금석 강인태 고도성 권종구 김경훈 김범중 김영복 김정기 나영재 류성희 박병주 방철배 이진승 임성묵 장진원 정성환 하영식 한승오 설현주 김연수 박원태 양연식 이재윤 문부현 배혜림 윤진구 이승우 신종민 김도형 김정민

▲섬유고분자공학과

강승희 김성현 김세훈 김완희 김유훈 김정경 김정환 김종근 김진모 김태균 김현수 김희재 라병주 문현식 박상혁 박성진 박찬우 윤종승 임두원 장민석 정 일 조상균 조재윤 한태근 황용하 강선교 김성민 이진균 홍준호 황재훈 김경석 김원홍 박종걸 박종수 최경수 최우석 편승용 이명호 황상욱

▲무기재료공학과

김권석 김병윤 김수진 김은식 류현승 박찬석 변태영 양성한 엄기영 오진목 윤석호 윤익성 이동엽 임승현 장도현 정득훈 정인재 정지용 최국현 최병석 최병진 최연식 최용건 최정식 김용선 김인석 신은정 이진우 황무성 김철민 최경진 하평수 강병기 송석찬 조병언

▲원자핵공학과

김성욱 김윤익 선광민 심동하 안동섭 양희창 이수연 이재현 이주형 임동철 임정연 정연균 한범석 한성숙 강기현 김용환 김윤재 박진명 이재윤 조동준 지진석 김성민 신현근 이재규 박정호

▲자원공학과

김근영 김정원 김태형 엄정묵 유영일 유찬세 이상근 이석민 이종수 장수호 전해표 정근영 정용현 정창호 제현국 하정희 황춘길 김재순 박경호 박성호 한현철 김동현 김명환 차형석 김용호 김원호 서정철 장인원 최시영 최영민

▲조선해양공학과

강상돈 경우진 권오철 김경수 김광수 김도훈 김상윤 남종훈 노재규 류철호 박종우 배선태 손석제 신동기 심인환 안정환 이경준 이병삼 이상영 이상욱 이형주 장계환 조성원 조용우 주성문 채규일 최재호 최제민 한동기 황인득 김범석 이성진 황대순 곽호진 김건호 민상홍 성영재 이동현 이재학 진은석 한범우 강상균 김형석 변윤철 양 열 오창진 서동근 이진형 이창은 길영배 박경현 배병선 이상훈

▲토목공학과

강 현 김성렬 김세훈 김창엽 류시완 류 혁 박동영 박상근 백경오 서민우 송준호 안재열 안호현 양윤석 유재연 이상훈 이재구 이정석 이종구 이준호 이호중 조용국 최성철 최원갑 김철영 류균재 박천종 여화수 이용수 김형만 양창렬 조정래 박형준 심만수 윤준연 이동희 이상주 권금선 김명환 김민성 남기진 안신환 윤준식 이문성 이성관 이창호 정성봉 조경훈 조명호 조영민 조진우 최강식 최대식 한동엽 윤태호 김승준 김진문 이강후 이승우 이승현 김병헌 류현욱 반종범

▲항공우주공학과

고은진 김기석 김선미 김성수 김지영 김지호 김현순 나형진 박시형 박일룡 박진석 박진우 부선웅 안병선 윤두희 윤성환 이상민 이용석 이종익 이창석 이창성 임경호 정치영 조금택 최승호 홍상훈 김준일 이재욱 최성임 김부선 박찬덕 송경열 이태호 경민수 정대환 임성표 주익철 김학균 정이호 황면성

▲화학공학과

강경욱 강마이클 강문호 강성훈 강진욱 고영관 고창모 구상모 권영종 김동호 김미영 김민우 김선민 김정후 김주형 박명준 서갑양 성지현 신동만 여은정 오주환 윤현식 이원보 이종민 이창열 이현주 임성수 전선규 정상철 정창근 최성묵 최재욱 최정미 최정인 표지웅 한상언 허 석 황성욱 라시디 김태희 류기원 이종원 장성욱 김성호 나윤홍 장영완 홍준식 황준영 강동훈 박상민 박선배 전성진 조순신 홍순명 이영기 최승현 김정교 류택완 유경렬

▲컴퓨터공학과

김민식 강문창 기양석 김경모 김수연 김연규 김철연 박선섭 박태진 배진욱 성낙희 송민석 신일수 안치성 오현옥 유영환 이동한 이문규 이병준 이상준 이상협 이승우 이시윤 이채영 이호연 정성우 최보경 최일환 하석재 황호성 김민경 류시형 이석배 최원익 강신철 김강희 변기성 오상열 우경구 이명호 최석진 한 확 박성파 윤원용 정효영 최창호 강다원 김태군 박형철 임성보 홍창선

▲전기공학과

구의서 김현수 노성환 정창원 김우석 안성호 정대욱 조윤제 김시영 김용석 이원일 정재화 강필성 김신성 김학균 나현철 남정길 문남수 박준용 박지순 양은상 임찬식 김경환 김민석 윤주탁 장지호 이정규 김종출 성 완 양윤석 최종빈 이재기 백혜원 강민수 강석우 강태민 곽천근 구이도 권기백 권성국 권용식 권윤혁 권재운 김건우 김광남 김광수 김나형 김대환 김동기 김문혁 김민수 김병욱 김성혁 김수환 김승준 김영한 김영훈 김정희 김종대 김주관 김준영 김증식 김진상 김진성 김천홍 김철균 김태영 김형석 김형탁 김화용 남계식 남순열 남영우 노봉균 문지철 문 한 민승현 박명규 박상균 박선명 박성준 박정진 박제철 박지훈 박진열 방영석 방지훈 배준우 성상경 성준현 송원회 송준일 송진한 송창빈 송호영 신동환 심승필 안준식 양진호 오규택 오상윤 오성원 우동수 유봉안 유장호 윤선근 윤성로 윤현동 이강윤 이교구 이동환 이상우 이석준 이성연 이 왕 이원종 이재성 이정호 이종식 이주석 이주영 이창수 이창환 이태연 이현우 임정필 임태선 임한상 임 혁 임형준 장필승 전주용 정경철 정권희 정상길 정용식 정은성 정학진 정한승 조은상 조의식 조장호 조지영 최광진 최동수 최성진 최승준 최 완 최원표 최정용 최철민 허노정 허성호 홍성인 황민웅 황성수 황성수 한재희 장연웅 아누아 김순영 안성근

◇농업생명과학대학

▲농학과

구본일 김민규 서동명 선지영 장영조 전제응 김형섭 진중현 오재석 임완상 정창국 최명식 김용국 김용팔 김정호

▲원예학과

김동환 김영삼 김지수 김진아 박혜연 성경희 신여명 양동철 오두진 유재흥 이연경 이형석 정영윤 손선아 이충원 김종찬 이준구 김종만 정현환 박종대

▲산림자원학과

박강일 박상욱 박종진 이승현 이용권 임찬규 조창묵 최성호 홍필성 김태규 손희수 강의웅 김성주 김정익 모원균 여운상 이재관 임은호 정윤식 조국래 최혁재 현충식 박형국 백철우 김규호

▲임산공학과

김주일 김태영 박성아 안석근 이수민 장기태 허동명 권주용 정한철 김우성 박형준 이우석 최완식 곽남곤 국환호 박명영 박준호 유승환 이경우 이상우 이석력 이종락 이종익 장혜수 천종욱 박찬은

▲농화학과

정해원 강 민 고상진 권태근 김경윤 김소연 김진원 이용상 전영식 황영도 강진석 김성태 김용삼 김은영 이은경 이정실 최우정 구봉석 김삼중 서승찬 오성진 이용선 장재기 정현권 강호동 김대희 김연창 박장열 신진만 이종욱 정성권 최철호 홍성철

▲식품공학과

강춘길 고동한 김명좌 김정임 김지연 박성원 송재욱 신동우 우광식 유병권 이희섭 정일권 최영붕 최 일 김영주 류민정 김영영 김용성 김용훈 김재한 오기준 이영석 이재영 진세운 잔용수 김성겸 김현준 안승환 전수진 정덕만 최병철 김 솔 박상균 박종훈 이상민 이용우

▲농경제학과

김성욱 안병일 이만영 이명기 김민수 나근세 심승현 엄석진 이상진 최성준 하재욱 강삼구 박성호 배정환 장민기 정이수 강태현 김광진 박용석 박충렬 오영일 이병삼 이영태 이 현 임병천 고상훈 우영오

▲동물자원과

김동조 김민호 김세윤 김영호 김준구 박성천 박태섭 배수한 신필기 이일석 이종하 정미정 정승주 한성수 김 웅 류휘종 이신우 정소현 배외식 이영호 이준호 정용운 고송우 김병수 김종광 김현수 송호현 엄일태 이동고 이병수 이상준 이수현 이종진 이종호 정호영 진하영 최창순 박철호 김태수 김영조

▲천연섬유학과

권영남 권형중 김연진 김용주 배수경 이동기 조경욱 황수진 박인규 엄인철 이진우 정유진 이영근 최영규 구기완 서재권 이기병 이상현 이 욱 구자현 백광준

▲농생물학과

공희진 김지영 도기석 손삼기 신세영 안유민 양은하 조은경 손영수 이수영 이인기 이재민 장진희 최재영 배정환 박준석 정병현 김남경 윤 석 김웅섭 김진우 김태호 김한규 이재원 이정엽 강덕희 김대진 노병삼 이대오 임승남 정민우 정일성 민경진

▲농공학과

곽영철 문진국 박민수 박우식 배승종 이성재 이성태 이호재 진영민 최승만 김동철 김성민 윤상현 장주흠 최우준 김지훈 안선주 원정윤 임흥빈 전용준 정일호 조승욱 주국식 홍환표 송재철 임준형 서의석 김현용 박정근 신동헌 이상엽 이영욱 이재욱 이재훈 이정엽 이효희 황규준 황호준 강창완 김용수 박종우 서용호 정영주 육응수 이석렬 정병학 한재성 한호성 강정문 김종순 김중현 문창영 백승익 신희재 임장희 최현준 김현철 황기우

▲농가정학과

강지연 김경희 김명진 김소영 박선영 배숙원 서정아 유자은 이선영 이승아 이은실 이인혜 이정연 임도연 장민희 정혜숙 김화미 서영주 전윤정

▲농업교육과

구평회 권종렬 이성호 이영삼 전정건 조건형 진정화 홍영표 송영은 황준오 민경흡 옥은호 이승원 고동중 신홍주 이현재 인재열 설동식 손병문 김한나 신병재 이동하 이병삼 이상민 이 철 정진수 한창복 정종은 최상호 박성준 윤사구 이장환 전병호 최성훈

▲조경학과

김이식 김종훈 박 일 안성기 이승환 이형민 임종민 정남훈 정성은 최영은 한미옥 장광은 정석원 최경원 홍진표 권경호 김동완 김재균 신상희 여기영 임상섭 장근용 박철홍 위재송 이여백 이준헌 전 훈

◇미술대학

▲동양화과

박소영 방 진 배기열 신현우 오선경 왕신연 유한이 조윤경 조환희 이희광 백수현 신영호 신현섭 이광수 명규원

▲서양화과

강인경 고태화 권희정 김진아 박소영

박수연 오진영 이수지 이지인 이 진 김태경 박정연 양두석 이철진 김태진 오정근 이연식 류지선 우명하 이만나 김성수 최연식

▲조소과

강은혜 강주희 김민아 박선민 이유미 이정희 최윤아 홍영인 황언주 정연동 권대훈 오창근 이칠두 이 혁 최승훈 최흥철 정석근 허 정

▲공예과

강윤희 구경화 김은정 김지영 윤용호 윤지은 이병훈 이윤선 조새미 한진원 양희주 박수용 설영환 이훈기 송경홉

▲산업디자인과

두현영 마정민 박은수 신정혜 심상진 이범재 이수정 이윤희 임선영 전수진 전혜리 정수진 정은경 최병일 최정민 한성인 허진경 홍현승 송명진 한정윤 보비권 김우정 은덕수 이용신 임근준 김인성 김희동 박현일 엄성렬 정기성 정제능 김재철

◇법과대학

▲사법학과

곽서희 김동연 김연학 김종환 김주영 김태호 김태호 박병규 박상호 박성렬 박재훈 박준용 박철희 배정복 서영배 손승우 손정미 안상진 윤영수 이연주 이영상 이진관 이현수 임성희 임지웅 전우진 조영진 홍기만 홍기찬 박재선 김성주 김동원 이용우 권순철 권태형 김성훈 김욱준 김원형 김재훈 김진호 김태권 김형석 김호기 류정원 류정훈 박준석 송경숙 우동형 원용일 유영석 유영선 유정민 유천열 윤성조 윤형철 이경택 이민아 이상무 이상오 이상원 이순형 이승엽 이승환 이종원 이준철 이행규 임병록 임형일 장성학 장윤석 전용범 정광진 정수섭 정진우 조준현 조휘열 주 성 천재민 최강이 최신형 최영운 최용훈 최현종 최희준 홍은표 황선줄 황영명 황유경 황태희 강성훈 김천두 김태훈 신형식 오광원 이동원 이민호 문준영 장 선 최영균 허성규 권태관 한석봉 권경열

▲공법학과

김은영 박동필 신우진 심형택 염용표 이두호 이승구 이진효 임정택 정경선 정금오 최형철 한동훈 강기남 강상구 강승원 강재상 강 한 강현중 고의중 구광현 김기표 김대식 김대원 김도균 김동규 김봉원 김상원 김성배 김영모 김용운 김지홍 김태식 김헌식 김현주 김형석 류신환 마수열 박종욱 박찬근 박철웅 방창현 배정환 배호성 백재호 서동진 송충렬 신권철 신민석 신항묵 심규찬 양규응 여원주 이광준 이동훈 이병준 이시원 이준동 이희중 장경수 장세영 장영기 정경석 정서용 최보영 최성준 최준성 최희강 한경환 한상호 김성진 변성환 윤원묵 김서동 김주형 김현성 박무영 송찬호 오영상 오정식 유현종 이동준 이태형 조영희 오학수 김기열 김보현 김요섭 김우석 박상길 박제성 배은형 신 민 오 걸 윤영태 이옥형 조경헌 최강국 박성택 박홍서 서기호 이창형

◇사범대학

▲교육학과

김은옥 박은주 방진하 서기영 서흥욱 이지연 임효진 곽선하 김성식 김재희 박재성 여영기 정유미 최송화 류창수 박지웅 김대식 원성욱 홍원표 남충우 이승은 조정호

▲국어교육과

김기훈 김미옥 김선임 김소영 김여정 김지은 노지승 박영란 박혜상 송수정 이상호 이은희 장진영 조수진 채주희 황희종 권주영 홍경님 류홍렬 박병팔 주진택 고광수

▲영어교육과

권영희 김선영 박소현 박필환 박희양 손선주 양은현 오남희 오재경 윤종인 이미경 이은주 이지연 이지은 이현주 이혜원 이홍명 임국희 장서영 정현영 조용미 최옥인 한민영 허진석 노승현 정건영 윤진호

▲불어교육과

김승연 김은아 김정옥 김지은 신지나 심정아 전강현 임성연 조성훈 하천욱

▲독어교육과

윤종욱 정지현 최선경 강승구 김성연 백경아 이정석 정희정 조승원 고영진 박동훈 이성훈

▲사회교육과

김난영 김은경 박주라 송현정 이상인 이원용 이정미 정순미 조국남 윤정혜 김윤수 박원일

▲역사교육과

권보정 김영진 김옥경 김태희 박영희 박주애 손현준 임새봄 주윤정 한은정 이은경 박수정 서용국 신유아 여인로 이강훈 이관표 최석진 김완영 김현지 이성재 강윤식 박정환 김범석 홍성암 원혜영

▲지리교육과

강필선 김감영 김승주 김혜정 이은영 이은정 전보애 조대헌 허경희 이광욱 김대형 이채은 전희경

▲국민윤리교육과

감문이 김영은 김은주 김은진 류승화 박수경 안나영 윤미정 이명원 이현창 이혜경 임주연 천인숙 최효식 김현수 김희정 황혜아 도홍찬

▲수학교육과

김미애 김지현 남덕우 안준화 박주현 서승현 서희정 신지영 엄준형 염지아 오미영 윤형석 이윤주 이진의 임미영 임영주 임영태 최경아 최형석 김국인 김원섭 정경숙 황윤화 이수정 조상현 서상철 강윤주 이보경

▲물리교육과

공준혁 박영신 손승철 이정원 이정원 정병익 조종훈 하현준 계범석 김지현 김형석 심대식 박정보 이상범 김정욱 남경운 이강혁

▲화학교육과

강현민 김경준 김병임 김인숙 김형석 김혜리 박진균 박한웅 서문건 유재원 이은영 장우진 정가운 조혜진 차정호 최경선 최혜진 홍미란 김 준 김호정 소미애 이규웅 조성행 황선호 오승연

▲생물교육과

권혜주 김양국 남우정 박은영 안은영 양정민 정자희 조지연 최성한 한은경 홍영빈 반승록 이용운 손영호

▲지구과학교육과

공효식 권순규 권우진 김수명 이상은 이원희 이정은 이진기 이춘기 이현숙 임형래 박성찬 김홍재 오필석 최현식 구경록 김도형 장재용

▲체육교육과

강미아 강수연 권성호 김기한 김영환 김용대 김용태 박석진 박성훈 박승희 박호용 신재정 신현주 안규희 양재민 양형모 우신정 이길한 이동원 이용현 인상우 임채홍 임충훈 정대균 정 준 조상은 천영진 천호준 하동일 한동욱 우재홍 김근수 김현섭 민승배 박준영 박진우 윤정욱 임한철 홍성화 강 석 권형일 박완호 배인수 조남용 허창혁 김수진 김순조 김영덕 김용운 김웅희 김찬우 김형선 박성태 박준우 이인수 조명훈 최시호 김화열 원유창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강보규 김병진 김정래 김한진 김혁태 나준호 류신영 박진성 성희연 신지영 신현호 안경아 양정환 어형진 윤경아 윤병필 윤종웅 이경명 이소영 이윤이 이주용 이학도 이호선 정대이 최창순 홍은진 강병철 김승원 민경섭 박철환 배영민 정동복 정미선 신승우 유경근 장현철 황종익 곽양근 김용욱 윤현중 이창원 임광택 전상윤 최대우 신용은 정심호 조경호 조성택 박상표

◇약학대학

▲제약학과

강향미 김영신 김종호 박신웅 박혜경 백은영 성시환 송임숙 신유석 신호철 안성훈 유봉만 윤수영 이예리 이윤정 이은희 이장호 이진이 이진희 이효정 임혜경 정수용 조유선 채정현 최성필 최연지 최지웅 홍순선 홍승우 박문덕 공은주 김경찬 이지현 김옥주 김정훈 정현주 지준구 최규진 고동환 권오병 이지은

▲약학과

강문숙 강민정 강부임 강소영 고윤정 김민정 김은미 김인식 김재욱 김철영 민혜영 박소미 박지혜 신언경 오영애 유제경 이미영 이수미 이수영 이윤정 이진복 임정현 장준희 장지영 정기원 정성배 정승민 정윤희 주 청 최단희 한선미 허란희 허수진 허은경 이영하 남소연 이기선 조연주 성창현 정경하 최달웅 권성원 정원용

◇음악대학

▲성악과

고원주 김성지 김수민 김현진 박승혁 양은영 오정은 음종희 이세진 이용희 이유섭 이현민 이현정 장원석 전승현 정지은 조청연 주윤영 최윤정 최혜기 한정열 이주은 최한승 김대훈 김민석 변우석 안균형 원영경 김종건 남윤석 이상훈 이요섭 정광호 백승헌

▲작곡과

구슬아 김시형 김혜지 신은하 유순길 이재연 이정윤 조은화 고병량 김영주 이정혁 김섭리 문현선 신영예 이기녕 이미배 이소민 이승혜 이은복 정혜윤 정은주 신항우 문성호

▲기악과

공정원 김민지 김선향 김소연 김정민 김지혜 남영순 문재연 박은경 박주연 박지현 박휘암 성지연 손인애 송주현 송태연 신정원 이양경 이정화 이주혜 이지은 임지연 장소현 정선영 정성문 정혜욱 주혜정 한윤정 홍지나 황수화 오윤미 최재원 김성은 김성혜 김인경 김지영 김지영 김진승 남윤경 박재원 박지화 박필남 송혜승 오현승 윤새로미 윤지현 이수진 이주원 이진경 임수정 장윤희 전우경 정영안 정혜신 주현정 최해진 최희선 함현진 황미령 장호진 조은영 고현선 김소연 김혜선 김혜진 문수정 원지연 윤혜련 이근정 이서현 이선주 정혜원 진태숙 한미옥 이시연 김월암 김태훈 장선일

▲국악과

권미소 김소라 김수경 김은영 김은주 김정현 김진이 류은정 박영희 유성신 이방실 한서영 한태동 현은정 서용애 이은종 정유경 이진숙

◇의과대학

▲의학과

곽창신 김경원 정병창 강문철 강수정 강희경 공현식 권석우 권성근 권성연 권태은 김갑수 김덕겸 김도균 김동경 김동욱 김동희 김병찬 김상덕 김상원 김상준 김상헌 김상현 김석형 김선일 김세형 김신호 김영진 김윤경 김인상 김인철 김인호 김종찬 김지연 김지혁 김충현 김태용 김희중 김희진 나상훈 나옥주 나임일 노경현 도경현 문민경 문승규 박건우 박경희 박민현 박성호 박소연 박원경 박일권 박정수 박주현 박철기 박철용 박흥우 백대규 변재경 서동기 서승오 서종모 손재성 송민규 송서영 송은영 신기철 신동민 신동임 신영기 신원식 신장현 신종목 심순섭 안세진 안재균 안중호 안지현 안희태 양승엽 양혜란 오아영 오용진 우열근 우희연 유경상 유원일 유재호 유지숙 유지원 윤두환 윤상남 윤상호 윤형동 이경복 이기덕 이기석 이석영 이선주 이세훈 이승준 이승훈 이윤식 이정언 이주훈 이준규 이준우 이준호 이지훈 이진아 이태연 이택상 이해영 이헌일 이혁준 이현승 이희석 임 수 임평진 임형석 장성수 전창식 정성일 정용진 정중식 정현정 조영민 조용범 조은윤 조중양 주 웅 주원덕 천은경 천재희 최석주 최선명 최수연 최영권 최윤라 최종순 최준일 최준호 한경열 한만희 한성식 한수연 한일규 한주용 홍경섭 홍성규 황성일 강진모 김석중 김성훈 김영민 김종민 박민수 서천석 유정현 이용범 허정민 최병섭 하범단 이은형 강문성 김규석 김대열 김민석 김민철 김상균 김수철 김정환 김진범 김진영 김찬종 류한욱 박종헌 박홍준 백성현 서상수 안경흡 여용범 오권익 이종훈 이현석 정우정 최상식 황승욱 황 희 유재훈 유상호 강두경 권영훈 김성민 김성희 박형준 홍정은 한승헌 최원영 황승주

◇간호대학

▲간호학과

강혜영 강혜정 곽미경 구영신 권현선 금경아 김덕희 김민영 김민영 김선하 김소정 김완혁 김혜영 김혜진 류동희 류영미 문소영 민자경 박경숙 박상희 박준희 박현주 박혜경 배지록 변혜진 설미이 신윤실 안영희 오미란 오세은 오인선 왕은자 윤미정 이은미 이은희 이혜영 이후선 장미경 정희정 조정숙 최선일 하경희 함춘선 현수엽 홍영주 황보영 황성희 황은혜 김정렴 강태림 김윤아 류재금 박미애 배난희 서수경 설정옥 이은미 장보윤 장숙랑 최선희 전현정 이성록

◇치과대학

▲치의학과

김상도 이갑재 감동훈 강나라 강창우 공형규 구현정 김기홍 김미자 김병국 김보애 김봉애 김승남 김양수 김영연 김윤승 김인수 김정호 김태형 김현아 김형기 노태우 노형길 류우인 류주희 민경만 박명숙 박범석 박상욱 박수진 박재우 박주용 백세미 백현경 성소영 손희욱 신승윤 심혜영 안강민 양원경 유인아 유종욱 윤경인 윤미진 윤종욱 이대극 이민정 이범석 이병철 이상구 이수면 이승주 이신정 이연희 이윤석 이정민 이정애 이주아 이진옥 이한규 이한규 임동혁 임종안 임효정 정기수 정성권 정유미 정현규 정혜성 조형호 주지훈 최낙원 최성관 최원종 최원철 최정원 최진호 팽준영 한만원 한승민 현정민 김병철 안홍균 이상철 최문기 권순만 김남식 김은주 박소녀 박윤수 정진택 지석호 조완석 김원태 이재환 오흥민

석 사

◇문학

▲국어국문학과

김명운 김은정 토시히로 김 진 손정수 임준호 곽용주 김윤정 손태도 장시광 고정희 구본현 노세경 이승희 이은섭 임재서 전봉관 정천구 한성우

▲중어중문학과

이소영 주기평 정명수 홍금주 변지원 임정현

▲영어영문학과

김희수 안은주 어정욱 이기연 박선주 유현숙 윤성호 정수영 정은귀

▲불어불문학과

김동수 노은옥 최대환 최영균

▲독어독문학과

태경섭 정소영 류수린 차윤석

▲노어노문학과

최종술 이현우 김정일 백준희

▲서어서문학과

강성식 김영미 이충효

▲국사학과

유필조 김정미

▲동양사학과

이용규 구범진 손승회 이수덕 강진아 박 훈

▲서양사학과

최재인 남종국 신종범 이시연

▲철학과

이상헌 김순호 전헌상 권정인 안선희 전대호 송유례 오유석 이재호

▲종교학과

하현애

▲미학과

서진희 강미정 손주현 선승혜 조연수

▲고고미술사학과

권윤경 김범철 강달송 강인욱

▲협동과정

안재원

▲사회학과

김백영 김필호 김성규 신원철 정영철 최재혁

▲인류학과

김경미 한 억 김자영 고은강 최선욱

▲심리학과

서수균 고재원 서재호 심상아 박에스더 백은수 이계원

▲지리학과

이무용 김영식 박은경 오충원 이 욱 이정욱 전현택 정수열 정은진

▲사회복지학과

구인회 나은영

▲신문학과

김상휘 김정희 서현승 이은주 임정아 정혜경 조윤아 채미선

◇정치학

▲정치학과

김경희 전진영 차명진 윤영모 김동연 박지광 유광석 유범상 조영남

▲외교학과

조동준 윤 비 정정민 홍기빈 김범진 이근욱

◇경제학

▲경제학과

김준오 곽용선 김범구 박철범 송민경 양진수 이강국 이종서 정세은

▲국제경제학과

노건기 조휘성 최재원 박성태 한재준 류인천 민경래 윤재호 이시혜 한호경

▲농경제학과

안찬용 김상배 김기주 남상정

◇경영학

▲경영학과

김명섭 이승엽 박영휘 정미라 권태용 김철희 김태경 김태관 김 혁 박정빈 박철우 백승우 백종생 이종웅 임문혁 정상진 최종두 김성준 김운호 김재윤 김태영 박진희 송영호 신동수 신용운 신유근 이준식 장진승 정의교 정진형 조 철 강신재 강한수 권순동 김광식 김남호 김보민 김윤상 김정만 김춘수 맹지선 박경원 박정수 서기석 서성호 설성재 송희준 신희균 유정석 이강욱 이상도 이상민 이상준 이재훈 임계현 장재봉 조교식 한정민 홍용천 모 센 김경아 강민균 강성근 강현희 공경태 구민서 구태균 권기환 김문웅 김미진 김민용 김병재 김성현 김수현 김영규 김재희 김정균 김진우 김현성 김현식 나채정 남수현 노기팔 노 원 노중균 박상희 박재영 박준홍 박채균 박치민 박택곤 손현정 송윤정 송윤화 신재용 신현상 심인섭 오철진 유석호 이동욱 이승기 이원준 이정민 이정언 이철진 이춘흠 이혁수 이혁준 임성훈 정용진 정용호 정필선 조성근 조항섭 조형기 차윤석 최구룡 최근홍 최우열 하성욱 홍영란 알마스리

◇법학

▲법학과

김동국 이재덕 이은애 장영돈 정연순 오종한 진경준 김윤범 김현철 정영진 조영범 김이수 나영숙 박규찬 이현종 장인태 고일광 김정곤 오병두 오정후 조우영 김준석 노동렬 서정욱 신만중 이우영 정종욱

◇이학

▲수학과

이재호 김대용 한종민 소성봉 안필수 유영삼 이규배 이승환 이종진 이현미 강정현 권병남 권재훈 권혜승 기호삼 김상정 김창주 노동진 박부성 박수호 박영수 유영보 이규환 이정근 장근혁 전진하 최경렬 홍 진

▲계산통계학과

이승진 구복모 권민석 권상훈 김병철 김성민 김소연 김윤수 김일환 김종덕 김한준 김혜영 김홍근 서인욱 송재각 신동준 오경수 이규재 이창주 이형구 정재목 추상완 손관설 이태호 권재명 김상언 김지연 박미라 박영주 박준오 박창이 소경미 오종상 이경원 이윤경 장일성 정석오 정성희 조일구 조찬희 채금옥 최혜진

▲물리학과

정현철 문수영 김규태 박경원 채병훈 최기현 김진율 설영호 윤영환 이창원 진환성 강동완 강상규 강태민 고윤일 김근영 김명관 김욱제 김인철 김재헌 김종덕 김진석 김진우 김철규 김철민 김현조 나해영 남동석 문세훈 박세환 박제동 박중헌 박철수 변중섭 서순애 송완영 양광석 엄병호 오찬익 윤영귀 이대수 이대영 이병양 이용환 이우철 이원규 이재훈 이종권 이주형 장기호 전병구 전병득 정난주 정제민 정종훈 최영신 최중선 최호진 한성호 한충헌 허 성 홍성철

▲천문학과

이재관 이호규 변도영 안상현

▲화학과

정종모 오능환 이희승 홍대원 권순재 박준호 최재현 디야스 강민정 김두헌 김 민 김석진 김선희 김연주 김영근 김영일 김종영 김진학 김태우 김효준 문철순 문희정 박민효 박세진 박정규 신승훈 오정숙 윤보영 윤상운 윤성규 이남영 이수광 이영종 이영주 이용한 이은경 이준석 이해일 임춘우 장락우 장안수 전경덕 정진욱 조종현 조주희 조현선 진승민 최세현 최준식 추현아 피혜원 하상수 하준용 하태준 한진욱 한혁수 홍인석 황대일 황완구 황준호

▲생물학과

지광재 채희경 김원진 김순희 김정훈 김지태 김창기 김형규 박영철 박우현 서지원 송견지 송지영 안혜경 오수경 이한길 이혜연 조정연 최은영 최혜란

▲분자생물학과

강명균 강민석 권정아 김민지 김사흥 김우재 백성희 이영현 이용원 이중혁 이지원 임영신 정년철 조현아 최영식 한승진 한윤호

▲미생물학과

고관수 김주엽 김태영 김태일 김희령 류재곤 백용운 백화진 서보광 송경화 윤기정 이경일 이동근 이승훈 이윤경 이 정 이준희 이 호 임재혁 장지훈 한미영 황철상

▲대기과학과

구성준 백현숙 서경환 김동준 김윤재 부경온 이명인 이영희 이용근 장림석 정길란 조혜경 하소영

▲지질과학과

전인성 민경원 이정상 김유홍 김윤영 신동복 여상진 유병욱 정병곤 구형모 권명재 이제중 김동일 나광웅 한원석

▲해양학과

심원준 김해철 신용일 김진호 김홍식 양준용 최문수

▲협동과정

김연희 서소영 주일우 김중규 박수민 서 진

◇가정학

▲식품영양학과

강상경 김경하 신소영 심재은 이상아 이선미 임지원 정자용 정현정 주달래

▲의류학과

최 정 권준희 김수연 김정선 김정숙 김정희 김태연 박경원 심은경 오정선 이은주 이현주 정수진

▲소비자아동학과

김인숙 김미선 이경희 이준선 조희경

▲농가정학과

정호선 설 향 정은주 허 진

◇약학

▲약학과

박성혁 권수연 하태길 강경애 강주혜 고현정 권수현 김경순 김문경 김상봉 김안나 김재순 김재현 김정연 김청택 김현미 김혜자 김효진 류수정 류재상 박무신 박주섭 박혜선 방근수 변영주 서병철 손현경 송문정 승상애 신수경 신영아 신재규 양경랑 오용호 유상아 윤광희 이사원 이상덕 이수정 이수현 이수화 이승학 이은주 이종섭 이종호 임운섭 임후강 장은주 전명인 전준호 정선화 정은아 정주영 진무현 최원선 최윤정 최청하 하정미 한덕희 황만순 황선욱 황세영

◇공학

▲건축학과

강우영 김태완 오현석 여상진 강석원 김선숙 김태영 김현준 남궁철 류승념 박영욱 박철수 양진석 양형라 유정호 이강혁 이대근 이동훈 이상헌 이재은 이준호 이중완 장기욱 정부영 정진팔 조항만 천성철 최도석

▲공업화학과

강인중 김경열 김도현 김병동 김용태 김준형 김지수 김진한 김학성 김형수 민성식 박철완 신종식 여승욱 유병희 유성현 윤정규 이도훈 이선구 이정훈 이주호 이지은 이창현 조진구 허승현

▲금속공학과

하태석 김길호 강호정 김동찬 김상태 김성은 김수현 김태영 김태훈 김호연 문성환 문승호 박성준 박영신 박응철 박재영 박재용 박홍식 박희석 손현수 신용창 심재혁 양혁수 오재청 원용철 윤상훈 이규영 이재국 임영록 임창동 임현석 전규창 정원제 정화구 주연배 한용하 허성욱 홍승현

▲기계공학과

권기영 김동주 김상엽 김성욱 김영환 김정인 김태우 김홍연 김홍집 민태기 박상봉 성재용 신성호 심재혁 양문흡 양학용 우만현 윤영석 이동근 이두순 이수복 이현호 이홍욱 임용섭 임준우 장영일 정영호 조문기 조병훈 진민성 최경오 허종태

▲기계설계학과

서정철 김기현 김인기 김준양 김흥규 김홍수 류시형 민경필 박관수 박성수 박종호 박진호 배상우 서경원 송상현 심세용 심영보 여인재 유선중 이상호 이원희 이진우 이호영 이호철 임성한 임시형 장호찬 정진영 정진평 조현수 조현우 최형길 허정훈 홍주표

▲산업공학과

김동수 김민수 김병규 문재필 박찬규 백한승 서용원 성명기 성제훈 송호영 안광모 윤영하 이동기 이삼수 이영용 정지복 정평기 정후상 조남욱 조창규 지용구

▲섬유고분자공학과

임현호 김동하 김건형 김대곤 김우성 김종원 김종현 김창훈 김태욱 김태형 김한도 나양호 박미경 박종승 송기태 송주화 송준명 신관수 양승철 이무석 이세근 이원재 이재원 임정남 정상우 조대환 조용우 최성학 최준혁

▲무기재료공학과

강명구 공필구 권병호 김민규 김민기 김양기 김정효 김진복 박성균 박영조 박지수 박진원 부경호 서명기 양성진 양정승 윤혁준 이대형 이석원 이재빈 이재욱 이중건 정대용 한상민 홍대영 히데키

▲원자핵공학과

전지한 김성태 김용호 김재학 박문수 변수현 서준호 손기윤 송수준 육성훈 이정훈 정광진 정구영 정모세 정재훈 정진오 허 민 허창욱 홍순준

▲자원공학과

권형석 유승훈 조국형 구성원 권경중 김정엽 김종신 김한수 류동우 손정술 안주성 안형준 오석영 오일영 윤일권 윤재구 이규상 이진용 장일식 장현익 전성열 정용복 차종문 최용근 한충용 허 승

▲전기공학과

박정우 정해성 김도완 김성준 김성철 김용민 김재형 김정원 김정훈 김중균 김진균 남동경 박성희 박재성 박철민 손진만 송승현 신두성 유경탁 윤장현 윤지택 윤차근 이승우 이정우 장근호 전범진 전우곤 정대웅 정석환 정윤찬 정재훈 조정현 조홍식 최정훈 최진우 홍승완

▲전자공학과

박경남 이강식 이수웅 임정돈 하길식 강시욱 김규석 김기백 김덕년 김문정 김병훈 김영국 김영섭 김한수 김형욱 남기철 류인효 류충렬 명형국 문용삼 민병준 방희석 범재영 서문교 손우식 송기환 신영수 여덕호 오규환 유제관 윤여환 이상욱 이상화 이상훈 이용재 이정우 이희준 장준호 전병곤 전진환 정용권 정인영 주원재 최영진 최 혁 홍용택 마틴헝중

▲조선해양공학과

양찬규 윤현세 김석준 김신형 김영수 김유일 김호경 문상혁 박성건 신창현 신호식 심우승 안지용 유병호 윤재돈 이근배 이동환 이승주 이왕근 장범선 장진호 장창환 황윤식

▲토목공학과

채성태 최진오 김진만 박기태 구희웅 권장섭 김광수 김모세 김봉균 김유석 김윤상 박신영 백상현 서영국 성택룡 심창수 양태석 이동우 이두한 이수형 이승우 이희황 전세진 조윤구 최병성 오정균 강승림 김경태 김대영 문경일 박지훈 배태석 오태식 이대근 이응곤 이현홍 장준석 정한웅 조춘만 최중석 황부연

▲항공우주공학과

송주헌 신동길 김기태 김기형 김병윤 김성은 김성필 김창성 김태환 박광은 박영회 박종현 박지완 안재권 오병규 이보성 이상욱 이창혁 정춘상 조성준 채동석 최규호 하종원 황재호 황정범 황정선

▲화학공학과

김우식 심창훈 강달영 공병희 권인찬 권순우 김백만 김우경 김윤보 김태완 김형준 류현규 박승준 박재연 박종복 박태준 박현수 서영호 손영수 신은우 어진수 오은석 유호철 윤병훈 윤영민 장태석 정붕군 정호일 조은범 최광훈 최규헌 최창훈 한재혁 허기수 허윤준

홍성희

▲제어계측공학과

김종주 이상용 강지양 김승진 김정호 김진철 김창수 김평수 나일주 박준구 배성한 손종서 송세혁 오지성 유한석 이경헌 이동수 이상우 이성직 이영수 정도현 정동욱 정민섭 정병용 정성학 정재훈 조영철 한종희 한진호

▲컴퓨터공학과

이철재 강성주 강성호 김기욱 김도완 김동균 김동성 김병완 김성관 김유병 김은삼 김태현 문한구 박성배 박홍식 박희진 서범주 서양민 신효섭 여지황 이상철 이수형 이종우 이효순 정태환 조래훈 조진행 조진형 최효진 한주선 허예랑

▲협동과정

박용철

◇농학

▲농학과

서준한 유희숙 한상준 홍진석

▲원예학과

이재현 안경구 이상능 강정구 강호경 고문경 김용재 김은경 김준엽 문보흠 문지혜 백지현 오 욱 윤희영

▲산림자원학과

이강오 김 휘 박필선 정태성 조기현 최태봉 황영현

▲임산공학과

현재혁 이국식 이수희 강경택 김광모 유태경 윤혜정 이준호 정광식 최대웅

▲농화학과

권용관 계홍석 박미현 박상기 이군택 이복자 이상익 임재윤

▲식품공학과

권영은 김대옥 김명동 김현정 민중식 신종헌 염경식 윤현근 이원경 이재환 이태영 장영기 장재호 진제형 최준오 한정숙

▲동물자원과

가학현 김남식 마준호 윤호백 이진우 권영환 김시동 김지훈 김진동 김형기 민중석 안영태 이운규 이진복 조재순 황규춘 황성규

▲천연섬유학과

공영선 김진태

▲농생물학과

김상열 김순옥 박의훈 서영수 신광훈 안응진 양영국 임선희 정효원 황창일 강방훈 최형태 최훈식 김순일 김우진 김정욱 서종복 양주필 이대원 이종호 정인범 정천해 정철의 노양국

▲농공학과

고광돈 길상춘 박영진 엄명철 윤남규 전상옥 이용범 기노훈 김대호 김형조 배영민 이강걸 이재환 정창호 조대훈 조춘환 황창선

▲협동과정

이민우 라현기 박명수 박석준 이공주 정인홍 최치민

◇수의학

▲수의학과

공병철 김기하 김용상 구현옥 김영석 김종호 김태완 남정석 서형식 손용성 송길영 안경규 우계형 우흥명 장동우 채창수 한성규

◇미술학

▲동양화과

변명희 강혜승 최미정 최혜원 김형률

▲서양화과

박세현 안인기 장동광 김윤경 김진아 조명식 최선영 한젬마 김정선 박수현

▲조소과

장선결 김상균 김태진 조정화 최진욱

▲공예과

권용미

▲산업디자인과

김충원

◇음악학

▲음악과

강일모 안희봉 김인숙 김주현 최수연 김혜영 윤혜진 이주희 최진아 최희연 고동희 김 연 김정아 남지연 노수경 이수진 장휘주 정수현 주연수 최윤희 최현경 하상희 함인아

◇교육학

▲교육학과

오정인 조영숙 박상철 정동화 김도기 한점숙 김현진 박인심 윤홍주 상경아 송해덕 장정호 김민성 김경집

▲협동과정

이경숙 양현경 이은정 이항순 권정원 김은정 송유수 손기영

▲국어교육과

민병곤 엄 훈 이영숙 조희정

▲외국어교육과

공미나 김재웅 김현정 최한숙 심재은 김은영 이지숙 손대영 양은영 한규동

▲사회교육과

박상준 장원순 박형준 김쌍규 안정희 황완길 박선희

▲국민윤리교육과

박성춘 이 순

▲수학교육과

박문규 장희숙

▲과학교육과

김영삼 이승진 홍재식 강남화 김석균 박종찬 손정우 이명화 임성민 조배두 이진승 김주래 정은희 곽동석 권혁상 김태균 백승용 이소영 이태원 정지훈 김진성 김정녀 김형순 남현순 강민영 김선희 김영수 김지수 김차섭 이수연 이영진 한지원

▲체육교육과

박형준 최중철 이승훈 김재천 김정용 양윤희 한대우 김종필 남궁영림 도상욱 박익렬 유창완 조병래 기우치 곽효범 김경식 김경태 김연정 김용호 김재훈 김태형 류제원 박승하 백성수 백종우 은선덕 이왕록 이혁종 임태상 최선철 홍순천

▲농업교육과

김종우 박동열 김영수 김재웅 기강도 조성백 최창욱

◇의학

▲의학과

정배연 고영환 곽찬영 김종흔 김철희 노우철 방사익 손주태 안홍준 이계형 이종균 이중의 임영진 최두환 함태수 황환식 김덕환 정철현 김 찬 노인화 이은봉 강건욱 강기철 강승백 강제구 곽 철 기숙현 김갑수 김경문 김경선 김규환 김대용 김미란 김범준 김병관 김숙경 김용호 김우경 김욱환 김웅한 김원배 김윤준 김일명 김재규 김정연 김정훈 김지은 김태균 김태엽 김홍대 남상욱 남현우 민경완 박경석 박교훈 박기호 박상은 박상훈 박세광 박영미 박재석 박종두 박형규 박홍식 배재남 변성완 성정남 소 영 신성웅 심은희 안진석 양순하 오준규 오흥범 원태희 유종우 유창달 유항종 윤용하 윤인영 이강수 이동윤 이미정 이상협 이성구 이성현 이승준 이영경 이종국 이준교 이진성 이해원 이혜숙 이환효 임기환 장원종 전민호 전사일 전상룡 전성수 전은실 정경해 정융기 정진행 정혜원 조성욱 조용진 조주희 지영구 지현근 최경호 최승호 최정윤 최종배 최지영 최지은 표진원 한기석 허윤석 홍근식 황기선 황정원

◇간호학

▲간호학과

박선희 장미영 김정희 이상금 임경춘 최영애

◇치의학

▲치의학과

정상철 김혜경 박윤경 신명미 강미애 고재희 곽정민 권호범 김성곤 김성균 김용수 김 욱 김은석 김재홍 김태영 김현주 김희선 박미림 박선이 박애란 박정삼 박종섭 박찬제 백동헌 송경화 신명상 신은섭 안석준 안장훈 엄승희 연상흠 염혜리 이민영 이선경 이용석 이주희 이현미 장원정 장일성 전영두 전철민 정현석 조성만 조은정 최원재 최항문

◇보건학

▲보건학과

조영식 이후승 이수정 임병묵 임재영 조정인 김성원 한동운 홍수연 박수경 이용표 이춘자 조계숙 구본미 권수진 기모란 기혜성 김은영 박성규 손신영 이상원 이영신 장원기 최상은 홍미희 문 용 김진섭 박준수 김도형 김선미 박수연

▲환경보건학과

정헌종 이종현 강중구 이성득 하미나 한상환 강주원 공상휘 김정현 변혜정 양원호 이한주 정회명 최명신

◇행정학

▲행정학과

이광훈 조병기 김세영 서정욱 김진욱 정복철 고영경 김종인 조정아 나영돈 김성중 김우호 박석현 박재형 윤재웅 이승식 이용욱 전영욱 최순영 한순기 채재은 구경렬 김진홍 김형락 김형철 양유진 엄기종 윤성혜 이상윤 이준하 이창배 조윤희 하정수 김종양 강부성 황종우 배두용 박노익 이준희 김철민 김상헌 안상열 박철규 김완기 김태형 이용철 임재욱 허민경 김석범 김정중 김준호 김창수 김한수 김현준 민경환 부형욱 이형철 정소운 최경희 최준환 하정봉 홍래형 홍성훈

◇도시계획학

▲환경계획학과

김종오 노영아 백준호 이은미 이종수 강은아 곽순길 김묵한 김성우 김용석 김은영 김종환 김태완 박성진 박영임 박형용 서종원 오성호 오은주 오정은 우연경 유가영 윤성희 이계원 이범수 이신해 이영은 장용봉 전성찬 조명현 조용석 최은희 호유정 황난희

◇조경학

▲환경조경학과

김동우 권진욱 김정아 김정우 문휘운 박은영 서경주 송병화 안승홍 안효철 양혜정 오지혜 오형은 유형식 이주은 정상아 정종대 정주영 최 준 최희경 최희주

▲생태조경학과

김훈희

박 사

◇문학

류보선 윤석민 김경아 양명희 고성환 구본관 문혜원 이은경 조영복 김의진 김영문 김진곤 이세동 안상복 최영하 류창교 정남영 이현석 이미영 김진경 노은주 장진영 김점석 길명찬 정도상 박성현 오수창 홍순민 이익주 정용욱 류승렬 김종수 박근칠 정병철 김덕수 한상인 장세훈 김종엽 정일균 박현순 장재윤 황주성 이재덕 박정호 최원규 이성기 김서중 이근용 최연실 한미현 고선주 김성희

◇철학

김성태 김성환 유제기 류경희 이진구 윤자정

◇정치학

서주석

◇경제학

이창호 유철규 이계평 조복현 황수철 한상범

◇경영학

이동명 홍길표 김근중 서진영 이동현

◇법학

손수일 이명웅 이헌환 정긍식 조해근 하태웅 김인재 김재봉

◇이학

이성진 조재근 박광순 전용석 정무길 김수화 김형도 박길한 고춘수 김 인 이석주 채종철 조성환 윤보언 이태영 김상범 박선희 채종근 최준호 김승현 박형순 손성한 최한구 황인두 유희주 전종성 김보연 심찬섭 이명애 성재영 이철상 황윤엽 송인찬 김성태 김승범 조은정 김규명 정관영 최영섭 추창오 유찬민 홍종국 박종규 김근배 변기원 김수희 김숙희 구미지 이정란 이종민 전의찬

◇약학

이미영 신계정 이유미 최한곤 김선여 박광준 임수정 이미경 이정욱 조경희 홍묘숙 박영호 윤우현

◇공학

송영훈 윤태호 양인호 이강주 홍건호 신종현 이규재 박현목 황태원 양영렬 장인성 추광호 황교현 박 순 김영근 박주욱 이시우 이효종 김경현 김남석 김진원 민석홍 이석운 이용기 주재현 최영식 황규호 최창희 정대헌 김세웅 최영석 김형수 유경훈 이만복 홍기혁 김상호 박상진 신지영 고강호 김병영 송철기 박동철 정순배 이우기 강석주 육지호 조준식 김경우 노영욱 박중휘 최병우 신동숙 김선우 유도준 이영진 박준교 곽종구 김명섭 조용섭 강한옥 윤병조 문주현 진호일 정경민 공재섭 연충규 명성호 최면송 김성동 조경래 문운철 송두헌 오덕길 이창주 장병수 이덕수 정경훈 김민구 안호영 이인열 이재학 이종원 이준원 최진혁 송재혁 김찬기 곽영기 김인학 유재훈 오남선 권순덕 박영호 이승원 박준필 최정우 이상경 이종현 구남서 김진희 안병호 황성욱 황수정 민남홍 박인준 박용철 이종천 한재현 장광식 안상철 이창우 김일선 오재혁 전창완 김시현 유호선 장래혁 추상훈 유광현 문유진 권택근 이정훈 김혁만 이상돈 이병도 김동명

◇농학

박석근 유용권 성주한 손철호 박시한 민춘기 심재현 조중연 윤형운 김경만 손경현 최준봉 이영진 김원곤 김영붕 서강석 임상동 최화식 서동삼 양철주 채병조 박범석 김상현 우수동 김진철 조국호 이충환

◇가정학

김명주 노자경

◇수의학

윤정희 오태호 김계성 박진봉 조재진

◇교육학

송병국 방기혁 김영철 후루가와 김동인 오성철 오윤심 조석훈 서 혁 김봉순 정재찬 김은경 장경기 이창수 이경한 권혁환 박영배 허혜자 김남일 이기원 이창훈 전성호 구수정 김도희 김윤경 임완기 김태형 윤이중 이성철 현무성 이복환 이형국 임재형 장창현

◇의학

최문기 김봉수 김준호 김헌식 성노현 이동섭 최기영 홍은경 김응중 김홍태 동헌종 민응기 박근칠 박종민 심종섭 이종서 정두현 최민호 강윤경 곽상인 김갑득 김상정 김종석 박우성 박태식 배현주 신희석 오민구 윤성수 이창훈

이홍진 조명찬 황정민 김기중 김연수
김인규 김현태 노 민 백완기 우영민
유석주 이가희 이성철 이승숙 이영돈
이주홍 정용환 채규영 한상훈 고경수
고창원 김익태 김희수 문형남 박명규
박용수 박중열 박중원 서길준 손현준
신명수 이건국 이안기 임동석 임영혁
정희연 조우호 한세환 황대용

◇간호학

서순림 강남미 김성재 조남옥

◇치의학

이인석 조효석 나춘화 이경호 장현석
김민겸 김인수 박계양 박숙규 박춘근
신동인 이순신 이인경 이철우 채윤필
김지희 박수경 연태호 윤숙진 윤찬송
장복숙 최동주 최승훈

◇보건학

안소영 김관기 장동민

◇행정학

하혜수 안태환 이수장 윤혜정

동창회 회원
22만명 넘었다

모교 96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지난 26일 거행돼 동창회는 6천1백58명(학사 3천8백34명, 석사 1천8백86명, 박사 4백38명)을 신입회원으로 맞이했다.

이로써 동창회 총회원수는 22만1천3백89명(준회원포함)으로 늘어났다.

관악홀 의자실명제에 동참을!

지난해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동창회관 5층 관악홀 시설보수를 실시하였으나 기존의 3백석 의자가 노후되어 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회에서는 동문 3백명에게서 각 10만원씩을 기증받아 고급의자를 제작, 의자 뒷부분에 출연자의 성명과 출신대학을 명기하는 「관악홀 의자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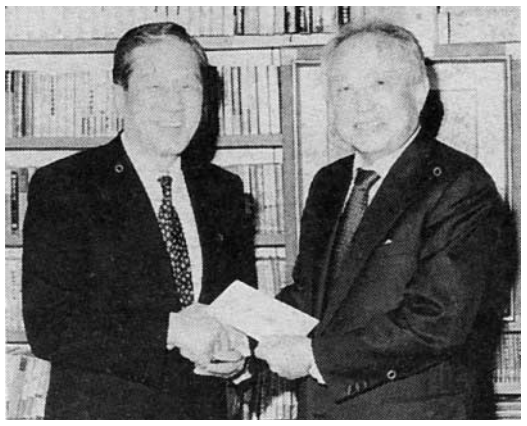
동문 여러분의 애정어린 협조로 현재 1백34개가 구비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1백66개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서울대동창회관이 서울대인의 진정한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월 출연자 명단(가나다순)

△金允培(변리사) △吳福東(변호사) △李俊一(중앙대교수) △任鶴淳(계홍치과원장) 도움주실 동문은 온라인 입금후 전화연락 바랍니다. **온라인:** 조흥은행 397-03-002804(김재순) **전화:** 702-2233

국민제휴카드 사업 결실
기금 6천8백82만6천여만원



본회 金在淳회장이 李淇鎔국민카드사장으로부터 기부금을 전달받고 있다.

본회는 지난 27일 종로 동숭동 소재 샘터사에서 국민카드사(사장 李淇鎔)로부터 동문들이 발급받아 사용한 「서울대총동창회 국민카드」의 장학기금으로 6천8백82만6천2백74원의 기부금을 전달받았다.

94년 9월부터 서울대 발전기금 모금을 위해 동문을 대상으로 발급해 온 「서울대총동창회 국민신용카드」는 지난 2월말까지 1만7백95좌에 달한다.

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이중 95년 한해동안 발급된 제휴카드(1만73좌) 총사용액에 대한 일정비례 금액이다.

“회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발급기간: 96년 1월 1일~31일

법 인

◇환경부 鄭宗澤(58년 法大卒)= 4좌

◇전국은행연합회 李相哲(60년 商大卒)= 1좌

◇(주)문학과 지성사 金炳翼(61년 文理大卒)= 4좌

개 인

◇經營大學

▲박종성㊽

◇工科大學

▲박광일㊼ ▲서정훈㊺
▲이문득㊸ ▲이성우㊸

◇農科大學

▲김영섭㊾

◇美術大學

▲김성희㊻

◇法科大學

▲김영배㊿ ▲오명섭㊽
▲이희권㊼

◇師範大學

▲손병주㊿ ▲허용수㊺

◇藥學大學

▲심규장㊷

◇齒科大學

▲유기환㊿ ▲정성일㊻

◇環境大學院

▲강덕원㊼ ▲유덕률㊼